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 15일 창간 http://dgupress.dongguk.ac.kr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 (02)2260-3491~2 FAX(02)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054)770-2057

제1302호 2000년 (불기 2544년) 9월 25일 월요일

금주일언

남을 책망하기를 좋아하지 말고 스스로 몸을 살피기에 힘쓰라. 만일 이것을 안다면 영원히 번뇌를 멸(滅)하여서 근심이 없을 것이다.

법구경 · 쌍요품 159절

경찰행정학과 경찰청과 교류협정 체결

본교는 지난 21일 서울지방경찰청(청장=윤웅섭)과 교류협정을 맺었다.

송석구 총장, 경찰행정학과 교수진과 경찰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맺어진 이번 협정을 통해 양측은 △연구자료 및 정보교환 △전문분야 교육지원 및 교류 △교육장소 지원 등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 북미주총동창회 1만달러

불교종합병원 건립기금 모금이 졸업생과 동문 등 각계의 참여로 계속되고 있다.

지난 방학중 북미주 총동창회가 1만달러를 기부한 것에 이어 본교 국제정보대학원 제 5기 국제정보 고위정책과정 졸업생들이 5천만원을 기탁했다.

교수회 활동방향 논의 계약 · 연봉제 대비

제7대 교수회 대의원회가 지난 18일 상록원 3층에서 개최됐다. 제7대 교수회의 활동방향과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한 이번 대의원회는 교권확보와 복지향상, 학내민주화 구현에 활동의 초점을 두었다.

그 세부 내용은 △연봉제 · 계약임용제에 대비한 특별 과제수행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척결을 위한 범국민운동 참여 △전국대학교수회 참여 △총장 중간평가 △행정부처 및 처 · 실장 평가이다.

▶관련기사 2면(서울보도)

고 정재각 전임총장 지난 21일 영결식

전임 총장 남사 정재각 박사의 영결식이 지난 21일 오전 8시부터 본교 불상 앞에서 열렸다.

영결식은 학교장으로 치뤄졌으며 유족을 비롯하여 학계와 불교계의 많은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고 정재각 박사는 78년 본교 총장으로 부임하여 새로운 교육방법도입, 학생복지시설의 확충 등 교육 및 복지 부분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또한, 고려대 교수 및 대학원장, 정신문화연구원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세계문화사' 등 다수의 저서를 남겼다.

법대, 사이버총회 근거조항 제정

대학 최초 전자투표 실시 기대 … 기술 · 비용 문제 해결해야

학생총회가 강의실 아닌 사이버 공간에서 가능하게 됐다.

법과대학 학생회는 지난 9월 9일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사이버 총회에 대한 조항을 신설했다. 사이버 총회와 관련해 새로 제정된 제14조는 의장과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진행했던 총회를 온라인 상으로 소집하고 진행 할 수 있게 하는 근거 조항이다.

▶〈표1〉 참조

법과대에서 구상하는 사이버 총회는 ID와 패스워드를 부여받은 학생들이 자유게시판에 의견을 게재하고, 인터넷을 통해 토론하는 것이다. 또한 선거나 의결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전산망을 통해 자신의 표를 행사함으로써 사이버 상에서 진행되는 전자민주주의를 실제로 경험하게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임승현(법4) 법과대 학생회장은 "이번 학칙 개정은 사이버 총회를 시행하는 근거 조항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최초로 소규모 직접민주주의를 시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타대학에서도 사이버 총회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서울대 총학생회에서 지난해 사이버 총회를 실시하는 것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 총회는 모집단위광역화와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서 점점 약화되어 가는 학생자치기구가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재도약 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시우 법과대학생회 기획부차장은 "대자보를 일일이 붙이며 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것보다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이메일을 통해 공지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며, 사이버 총회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 사이버 총회를 시행하는데 타인의 ID와 패스워드의 사용을 차단하는 인증 문제 등을 포함하여 기술과 비용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법과대의 한 학생은 "기술적인 문제를 생각할 때 아직까지는 사이버 총회를 시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인터넷에서 보안과 인증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임승현 학생회장은 "아직까지 사이버 총회를 시행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실제 사이버 총회를 준비하면서 충분히 보완해 나아갈 것"이라며, 사이버 총회의 발전 가능성을 이야기했다. 법과대 사이버 총회 관련 회칙 개정은 사이버 총회를 시작하는 첫 단계로, 사이버 총회는 타단과대 뿐만 아니라 총학생회 등 계속해서 그 적용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을 매개로 학생회의 활동을 학생들과 함께 하려는 법과대 학생회의 시도는 위축되어 가는 학생회를 회복하는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지영 기자 lemontree@dongguk.edu

〈표1〉 법과대학 학생회 사이버 총회 회칙 제정안

제14조 컴퓨터 등 전산망을 이용한 총회소집 등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컴퓨터등 전산망을 통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이 회의 회원은 컴퓨터 등 전산망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전 2항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 3일전에 구체적인 방법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 우리가 나선다"

시민 · 사회단체 연대 국민운동 본부 발족

교육, 사회 단체들이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고 사학의 부패,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연대했다.

지난 21일 사립학교법 개정과 부패사학 척결을 위한 국민운동 본부 발족식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발족식은 전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교육 관련단체 외에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녹색연합 △반부패국민연대 등 28개의 사회,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김태정(한국외국어대학 교수) 회장은 출범선언문에서 "전국 중고등학교의 40%, 대학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교육부문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학교가 족벌경영, 재단전횡으로 교육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을 국민적 과제로서 추진하기 위해 시민, 사회, 교육관련 단체들이 힘을 하나로 모으기로 결의했다"며 출범의의를 밝혔다.

운동본부의 윤지희(참교육을 위한 학부모 회장) 상임공동 대표는 사립학교법 현황과 법개정 방향 설명에서 "재단비리 범죄 당사자가 처벌기간이 끝나면 다시 복귀해 비리를 저지르는 부패의 악순환 구조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사학재단의 비리와 독단적 운영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덕성여대 한상권 교수는 "재단의 독단적 운영을 저지하고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본부는 다음달 초부터 올 하반기 중 사립학교법 개정을 목표로 △서명운동 △공청회 개최 △사립학교법 개정 결의대회 △자료집 발간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야구부 본선진출 청신호

축구부도 8강 진출

본교 야구부(감독=한대화)가 지난 22일 '2000전국대학야구 추계리그전' 홍익대와의 예선에서 5대0으로 이겼다.

춘천야구장에서 열린 이날 경기에서 야구부는 홍익대를 꺾어 '제55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대회' 결승에서의 패배를 설욕했다.

이로써 예선성적 1승1무1패를 기록한 야구부는 조별 상위 2팀이 진출하는 8강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야구부는 내일(26일) 동대문야구장에서 지난 16일 비 때문에 연기된 한라대와의 예선 경기를 갖는다.

한편, 본교 축구부(감독=김승기)는 지난 17일부터 열린 '제55회 전국남 · 녀 대학축구선수권대회'에서 한라대와 한양대를 차례로 물리치고 8강에 진출했다.

2학기 수강취소 28 · 29 양일간

오는 28일부터 29일 양일간 2000학년도 2학기 수강취소를 실시한다.

수강과목을 취소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업지도 교수 및 학과주임교수와 상담하여 수강과목 취소신청서를 작성한 후, 소속 대학 교학과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몸은 고돼도…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충북 제천에서 3년 만에 가을 농활이 진행됐다. 마을어른들은 농활대를 맞으며 반가운 인사를 나눴다. 농민 · 학생이 함께 한 제천의 가을은 풍요롭고 정겨웠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사회봉사우수대학 선정

본교는 지난 21일 '사회봉사우수대학'으로 선정됐다.

한국대학 사회봉사 협의회에서 주최한 이번 시상식에서 183개 대학 중 10개 대학이 공로패를 받았다.

본교는 참사람봉사단의 활동을 포함하여 △사회봉사 적립통장 및 훈장제도 실시 △사회봉사 활성화를 위한 장학제도 개선 △사회봉사 현장체험학습 △중구관내 불우이웃 돕기 등을 인정받았다.

지면안내

☞ 통신브랜드 멤버쉽카드 비교 7면
☞ 도서관 자리맡아주기 금지시행 2면
☞ 민혁당 조작사건 4면

각 통신회사의 멤버쉽 카드 혜택을 비교 · 분석하고 합리적인 사용법을 모색한다.

보리수

상대방에 대한 배려

박 경 준 (불교대 불교학부)

자이나 교도였던 시하 장군은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칭송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직접 부처님을 만나보고 싶어했다. 그리하여 자이나교의 교주인 니간타 나타풋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500대의 수레를 이끌고 부처님을 만나기 위해 베살리 시를 나섰다.

시하 장군은 부처님이 계시는 곳 근처에서 수레를 멈추고, 부처님 계신 곳까지 조용히 걸어 올라가 부처님을 뵈었다. 그리고 부처님으로부터 업(業)의 진리에 관한 가르침을 경청하였다.

부처님의 말씀이 끝나자 시하는 "훌륭하십니다. 마치 넘어진 것을 바로 세우고, 덮인 것을 벗겨내고, 헤매는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고,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밝혀 주시는 듯합니다. 저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께 귀의하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저를 제자로 받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개종의 의사를 밝혔다.

부처님께서는 "그대와 같이 명망있는 사람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하면서 시하의 개종을 수락하지 않으려 하셨다. 그러자 시하는 "부처님이시여, 참으로 존경스러우십니다. 제가 만약 다른 외도(外道)의 제자가 되었다면, 그들은 깃발을 들고 시가지를 돌며 '시하 장군이 개종했다'고 외치면서 선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오히려 저에게 신중하게 행동하라고 하십니다."고 하면서 더욱 적극적이었다. 부처님은 하는 수 없이 시하의 개종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그것은 불교로 개종한 후에도 자이나교의 수행자와 교단에 예전과 똑같이 계속해서 보시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수락이었다.

우리는 이 일화를 통해 부처님의 크나큰 지혜와 자비의 마음에 다시 한 번 옷깃을 여미게 된다. 우리는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입장과 이익만을 향해 잔인하게 치닫고 있다.

그리하여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정당과 정당, 종교와 종교, 나라와 나라가 극한 대립의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아니겠는가.

교수동정

▲김애주(영어영문학)=오는 28일 미국 오하이오주 로레인에서 열리는 제 2차 토니 모리슨 학회에서 토니 모리슨 저자들에게 수여하는 '저자 기념패' 수상.

본사사령

◇ 임 정기자
- ▲ 김혜진 (문과대 1)
- ▲ 이성희 (문과대 1)
- ▲ 이수경 (문과대 1)
- ▲ 김도영 (사회과학대 1)
- ▲ 김현정 (사회과학대 1)
- ▲ 손상민 (사회과학대 1)
- ▲ 엄태규 (사회과학대 1)
- ▲ 우정현 (사회과학대 1)
- ▲ 김남정 (인문과학대 1)
- ▲ 형진우 (인문과학대 1)

-이상 9월 25일자

동대신문 기획광고

발전기금 ARS 7000-119

6.15 남북 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00년 민족동국 통일대행진

문산~임진각 행진할때 화합과,통일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면 단체상,모범상,조별상,개인상 등 시상합니다
-대동놀이-
줄다리기(단체팀별 대항전), 널뛰기(팀단체별 여학생 대표), 단체 줄넘기(10인 1조), 투호(개인별 대항)
임진각에서 통일조형물 경연대회
통일 삼행시 대회
통일 대통령 선발대회

일 정 : 2000년 10월 11일 오전 10시 대운동장 출발
장 소 : 문산~임진각
접수방법 : - 과, 학부별 30인 이상 단체팀 구성
- 향우회, 동아리 10인 이상 단체팀 구성
- 팀별 5인이 1개조
- 개인별 참가 가능
- 교수님이나 조교 참가시 우선점수 부과
접수기간 : 9월 25일~10월 6일
접수장소 : 과(학부)학생회, 단과대 학생회, 총학생회

주최:민족동국 32대 자주적 총학생회 후원:학생처 학생복지실

"이 자리가 니꺼야? 좌석은 누구나 앉을 수 있어!"

중도, 도서관자리 맡아주기 규제시행
1차 1개월 · 2차 6개월 · 3차 영구출입금지

'도.자.기' 도서관 접근 금지조치로 도서관 '메뚜기' 해방 시대가 도래했다.

일명 '도서관 자리 맡아주기'라고 불리는 '도자기'를 근절하기 위해 본교 중앙도서관(관장=조용길·불교학)은 도서관 출입금지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리를 맡아주는 학생을 적발해 △1차적발시 1개월 출입금지 △2차 적발시 6개월 출입금지 △3차 적발시 영구적으로 도서관 출입을 금지한다.

따라서 주인 없이 책만 놓여 있는 자리가 없어져 좌석부족으로 이리저리 자리를 옮겨가며 공부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되었다.

도서관 근로장학생 10명이 중앙도서관 5개 열람실에서 학생들이 몰리는 시각인 오전 7시에서 9시 30분 사이에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학생에게는 신분증을 요구하고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낸다.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이후 현재 적발된 학생은 없었으나,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면서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장학생과 학생들 간의 잦은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단속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도서관의 최봉주 과장은 "공부하는 학생들과 근로장학생이 같은 학생 신분이라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며 "적발된 학생은 잘못을 인정하고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도서관은 휴대폰이 울리거나 잡담을 할 경우 주의를 주기로 했다. 그러나 단순한 경고조치가 학생들의 예절 지키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지 의문시되고 있다.

도서관은 이번 주의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학기부터 실질적인 물리적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도서관 예절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한양대는 다른 사람의 자리를 맡아줄 경우 처음 적발될 시 6개월 출입금지, 두 번째 적발될 시 영구적으로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휴대폰이 울리거나 잡담을 하는 등 사소한 예절을 어길 시에는 퇴실조치가 내려진다.

한편, 이번 조치에 대해 문과대의 한 학생은 "일찍 온 학생들에 대한 배려라는 측면에서 옳은 일"이라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반면 "처벌내용이 비현실적"이라며 우려하는 학생도 있다.

이와 관련해 최봉주 과장은 "단속을 통해 좌석부족 문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학생들의 도서관 예절에 대한 의식이 많이 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한번에 쏘옥" 중앙도서관 2층 과제도서실 컴퓨터 옆에 작은 프린터가 설치됐다. 덕분에 학생들이 더이상 손으로 도서정보를 쓰지않아도 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박지영 기자 lemontree@dongguk.edu

학생대표자회의 28일

'2000학년도 하반기 정기학생대표자회의'가 오는 28일 오후 3시 다향관 3층 세미나 실에서 열린다.

총학, 총여, 총대를 비롯한 각 기구의 회장과 각 단위 학생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회의는 △지난 학기 사업평가 △백상예술체전을 비롯한 하반기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복지환경 개선 등 상반기 학자합의안 이행과정과 새터사고에 관한 보고도 있을 예정이다.

졸업 앨범 재촬영 실시 28일부터 단과대별로

졸업준비위원회(위원장=박병남·무역4, 이하 졸준위)는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졸업앨범 재촬영을 실시한다.

단과대별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촬영은 1학기 촬영자에 한해 신청을 받으며, 복학생과 1학기 미촬영자는 졸준위에서 촬영여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촬영하게 된다.

오는 27일까지 학생회관 1층 졸준위 사무실에서 개별 접수받으며 재촬영 일정은 28일 △9시=문과대, 이과대, 정산대 △1시=공대, 법대, 예술대 29일 △9시=경상대, 사과대 △1시=사범대, 불교대, 생자대 30일 △9시·1시=야간강좌이다.

끼장터 참가자 모집 오는 10월 4일 개장

여학생실(실장=김영순·화학)은 작지만 자유로운 동국인의 공연 한마당인 '끼장터'에 참가할 학생들을 모집한다.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 계산관 앞마당에서 진행되는 끼장터는 오는 10월 4일부터 시작되며, 공연의 장르와 소재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서는 여학생실에서 수시로 배부한다.

전공정보가이드 발간 전공선택 도움줄 듯

2000학년도 전공 정보 가이드가 발간됐다.

2001학년도 신입생과 재학생을 위한 이번 전공정보 가이드는 각 전공별로 △교육목표와 탐구분야 △학문적성 △졸업후 진출분야 △최근 학문의 조류와 전망 △교수진에 관해 소개되어 있으며 본교의 학사제도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져 있다.

각 대학별·학부별·과별로 전공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 광역화된 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들의 전공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반기 취업률 63.2%

2000학년도 상반기 졸업생 취업률이 지난 18일 현재 63.2%로 나타났다.

졸업생 421명 가운데 266명이 취업하거나 진로가 확정된 것으로 지난해 상반기 졸업자의 취업률 61.5%보다 1.7% 상승한 수치이다. 이와 관련해 신봉근 취업지원팀장은 "IMF가 마무리되면서 취업률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교제도 개선안 막바지 혼선

교육조교 자격 · 배정기준 두고 입장 차이

결승점이 보이던 조교제도 개선안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러 혼선을 빚고 있다.

본교 대학원 총학생회(회장=이영재·정치학박사과정 3학기, 이하 원총)는 지난 6월 27일 조교제도 개선안에 대한 최종 협의를 마치고 △교수 1인당 1명의 조교를 배치하도록 신설된 교수 T.A.(Teaching Assistant)는 등록금 50%면제 △석·박사과정 재학조교 차등 급여지급 △현행 수업조교 폐지 등 최종협의안을 마련하였다. 최종협의안에 따르면 전체 조교예산은 기존의 조교예산에 비해 13% 증가된다.

그러나 원총은 최종협의 후 학교측이 제시한 '조교제도 개선 운영지침'에 대해 몇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표1〉참조

먼저 지난 14·15일 양일간 성급하게 이루어진 조교인사제청에 대해 원총에서 홍보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해 그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교제도 개선안을 △1년간 시범운영하는 것 △석·박사 급여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은 갈등요인이 되었다. 특히, 교육조교의 자격을 학교측은 '대학원재학'으로 원총은 '대학원재학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양측 입장이 팽팽하다.

이와 관련해 오광진 인사관리팀장은 "조교활동의 기회와 혜택이 대학원 재학생에게 최대한 확대돼야 한다"고 말하는 반면, 복도훈 대학원 부총학생회장은 "현행 교육조교는 대학원 수료생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을 고려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교육조교의 배정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운영지침에는 학과주임교수를 제외한 일주일 강의시간이 9시간 이상인 교원만 조교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단, 9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수강생이 60명이상인 교양과목을 담당한 교원은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원총은 9시간이상을 6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영재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교육조교의 자격요건을 낮추고 신청가능 교원까지 줄이고도 조교의 총 예산이 13%증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며 "조교들의 극단적인 총파업까지 예상되므로 가능한 한 대화로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원총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인 전체대표자회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표1〉 조교제도개선 관련 논란사항

구분	자격	비고
행정조교A	대학원 재학이상	석·박사과정 처우 차등문제
행정조교B	학사이상	합의
연구조교	대학원재학	합의
교육조교	대학원재학	자격기준 논란

김은선 기자 ppuzic@dongguk.edu

생협독립법인 추진회의 무산

이사회 구성안건 이견차이 좁히지 못해

지난 18일 열렸던 생협독립법인추진위원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 제6차 회의가 이사회 구성안건이 미결됨에 따라 제7차 회의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생협독립법인추진위원회는 4차회의에서 6차회의까지 논의된 이사회 구성안건이 타결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자 이같이 결정했다.

송재운(국민윤리문화학) 전 법인사무처장을 비롯한 처장급 인사들로 구성된 생협운영자문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11명의 이사회로 구성된 현재 정관에 교무위원 가운데에서 교원대표 1명과 처부장단에서 직원대표 1명을 추가해 총 13명이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주장했으나 여러 구성원들의 반대로 회의가 무산됐다.

황영수(사무처장) 생협독립법인자문위원은 "생활협동조합이 독립 운영되면 현 이사회로서는 적자 등 긴급사태 발생시 학교당국이 책임질 수 없다"며 "생협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책임을 질수 있는 이사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명곤 학생대표는 "학교당국이 건물 화재시 등 기본적인 책임을 분명하게 제시하면 1명 정도의 인사참여는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회전무대

유물의 멍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이 SOS구호를 부르짖고 있다는데.

유물의 외형이 갈라지고 녹이 스는 등 그 변형 모습이 가지각색이라고.

유물의 특성에 맞게 보관방법을 달리하지 못한 박물관측의 관리소홀 때문은 아닌지.

이에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 "유물 다 돌려놔~박물관 오기 전 멀쩡한 그 모습으로..."

동국파크

○…다향관 서점은 제 2의 도서관?!

학내 서점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책 구입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는데.

이유인즉 학내 복지시설의 일환으로 지은 서점에서 서적할인이 되지 않아 구입할 때 생기는 부담감 때문이라고.

이는 인터넷 서점도 실시하는 도서할인 혜택을 복지시설임을 주장하는 학교서점이 시행하지 않는 꼴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넌 동국서점에서 샀냐? 난 인터파크에서 샀다!!"

유(有)열

○…점점 서늘해지는 요즘, 강의실은 여전히 아늑한 여름(?)이라는데.

알아보니 형광등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열을 내뿜는 데다 본관의 샹들리에도 그 분위기 연출에 한 몫을 한다고.

고유가 시대인 요즘 학구열을 불태우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런지.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향학열이 높다하되, 형광열 아래로구나!"

특강 예고

○…학교의, 학생을 위한 휴식공간이, 학생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는데.

상록원과 다향관 앞에 설치된 원목탁자에 담뱃불과 신발자국, 심지어 칼로 판 흔적까지 있어 미간을 찌푸리게 한다고.

이는 소위 지성인이라 불리는 대학생들의 의식수준을 의심케하는 것이니.

이에 본 회전무대자 왈, "대학교에 바른 생활 강좌를 신설하자"

제7대 심익섭 교수회장 인터뷰

"민주적 교수업적평가 준비돼야"

계약 · 연봉제 시행 앞서 대학민주화 필요

2002학년도 교수 계약제·연봉제의 시행을 앞두고 전국 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 연합회와 전국 국·공립대 교수협의회는 전국대학교수회(가칭)를 구성했다.

이러한 가운데 본교 교수회는 지난 18일 교수회 대의원회를 열고 제7대 교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사업을 정리했다. 이에 본교 심익섭(행정학) 교수회장을 만나보았다.

- 본교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교수 '계약임용제'를 도입할 것으로 알고 있다. 계약임용제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은.

= 교수 연봉제는 교수의 업적을 평가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연봉액을 산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계약임용제는 해고를 정당화하거나 급여를 삭감하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 등 교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계약임용제는 시행에 앞서 모든 구성원들이 동의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정확한 교수업적 평가제가 준비되어야 하며, 평가가 민주적이고 평가 과정에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

- 계약임용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 이를 위해 지난 8월에 열린 교수총회에서 교수연봉제 관련자료를 발표했으며, 원론적인 대안을 내놓은 상태이다. 지난 18일에 열린 대의원회에서 교수연봉제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중이다.

- 전국대학교수회라는 대규모 교수연합단체가 설립되었다. 전국대학교수회의 역할과 본교 교수회의 활동계획은 어떠한가.

= 연봉제 시행과 더불어 현 정부의 대학교육정책을 지켜보면서 크고 단합된 단체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다. 그 결과 전국대학교수회가 설립됐다. 전국대학교수회는 교수들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과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이다.

-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교수회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 모든 교육은 공공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사립학교에 대한 모든 것을 재단에 맡길 뿐이다. 이는 재단의 비합리적 운영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교권 약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유발하게 된다.

심익섭(행정학) 교수회장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은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교원 임용제도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등 사립학교 운영에 있을 수 있는 부정 부패를 예방할 수 있다. 교수회가 법적기구가 된다면, 교권 확보는 물론 교수연봉제를 도입하게 됐을 때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 송석구 총장에 대한 중간평가 등 학내민주화를 위한 사업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 현재 교수회 안에 교권 위원회를 두어 총장선출 방식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 송석구 총장의 업적에 대한 중간평가를 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학원 4주체가 모여 학교발전을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 할 계획이다.

박지영 기자 lemontree@dongguk.edu

취업특강

2001학년도 졸업예정자들의 취업활성화와 취업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취업특강을 하오니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1. 취업특강 : 2000년도 하반기 채용동향 및 대책
2. 강 사 : 〈대학과미래〉 대표이사 장재성
3. 일 시 : 2000. 09. 25(월) 오후2시
4. 장 소 : 본관 중강당
5. 참 석 자 : 2001년도 졸업예정자 및 재학생.

실전모의 면접

2001년 취업예정자들의 취업활성화와 준비를 위하여 2000년도 하반기 〈실전모의면접〉을 10월 18일(수) 오후 2시-4시 개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모의면접에 참여할 지원자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학생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1. 모집일시 : 2000. 9. 25(월) - 9월 29일(금)
2. 모집자격 : - 2001년 2월 졸업예정자
   - 취업예정자
3. 모집인원 : 20명
- 개별면접 : 남,여 각1명
- 집단면접 : 남6명, 여4명
- 집단토의 면접 : 남,여 각4명
4. 접수처 : 학생처 취업지원팀 (본관, 2260-3054)

※ 면접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 지급.

학 생 처

교육실습동의서 접수

2001학년도 교육실습의 원활화를 위하여 교육실습동의서를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대상자들은 기한내에 접수하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01년 8월 및 2002년 2월 졸업 예정인 사범대 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2. 교육실습동의서 접수기간 : 2000. 9. 27(수) ~ 10. 20(금)

3. 실습기간 : 2001년 4. 2(월) ~ 4. 28(토) 4주간

4. 제출서류 : 교육실습동의서(소정양식)

5. 교부 및 접수처 : 사범대학 교학과

※ 교육실습은 전반기(4월중)에만 실시하니 대상자들은 반드시 교육실습 동의서를 접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사 범 대 학

통신질서확립법 입법예고 논란

논단

개인정보 소유권 등 통제 · 억압 삼가해야

지난 9월 19일 정보통신부는 흔히 '통신질서확립법'이라고 불려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이후 정통부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은 냉랭하기만 하다. 시민단체는 정통부가 일부 내용에는 진전된 입장을 갖고 있으나 본질적인 문제에서는 여전히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는 현재의 정보통신관련법에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집어 넣으려해서는 곤란하며 아예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별도의 독립법을 제정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보호체계를 갖추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자유와 권리의 침해요소

그러면 이번 개정안과 관련한 쟁점을 살펴보자.

첫째,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란이다.

정보사회의 최대 쟁점중의 하나인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은 이후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핵심쟁점은 개인정보의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가이다. 시민단체의 입장은 개인정보의 소유권은 당연히 개인이 갖는 것이며 기업은 서비스제공의 필요에 의한 일시 점유권을 갖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를 계약관계로 이해한 정부안과 보호문제로 이해한 시민단체의 입장이 충돌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양수·양도 시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것에 대해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한다는 주장(시민단체)과 개인에게 고지하면 된다(정부안)는 주장이 상충되고 있다. 또한 이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정부안)를 둘 것인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시민단체)를 둘 것인가 등도 상충되고 있다.

둘째, 건전한 정보통신질서의 확립, 소위 등급제 등의 문제이다.

이 법이 가칭 통신질서확립법으로 불리게 된 배경이 바로 등급제이다. 영화 거짓말, 이현세 만화에 대한 제재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이 이제는 사이버 영역에까지 확대되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현재 등급제와 관련한 정부의 개정안은 자율등급제이다. 사실 자율적인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는가도 문제이다. 하지만 더욱 문제가 된 것이 바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이다. 이 법은 정보제공자 일반 즉 영리목적뿐만이 아니라 비영리 혹은 개인이 제공하는 서비스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서비스제공자 모두를 심의 대상으로 하는 검열의 문제 즉 표현의 자유 침해 요소를 지닌다는 점이다.

정부권한 확대 의도

셋째, 도메인주소자원 관리 권한의 문제이다. 사실 이 도메인관리 문제는 이미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며 세계적으로도 민간기구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단지 도메인관리가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이를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정부의 권한확대의 의도이며 당연히 민간영역에 존치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윤리위원회, 정보보호원 등의 제도적 문제와 더불어 사이버스토킹,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새로운 매체에 대한 법적 규제는 매체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함께 시민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현재 시민단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한 별도의 법안을 준비하여 입법청원할 예정이다.

신 종 철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책실장

개인정보보호는 강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보사회의 역기능 문제를 이유로 사이버 공간에 대한 규제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이다. 정보사회 질서의 문제는 시급하지만 신중해야할 과제이며 특히 자유와 인권, 보호라는 개념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중인 9월 21일부로 정통부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특히 이 개정안에는 '불온통신' 규정이 유지되고 있으며, 윤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였으며 피해분쟁조정기능을 추가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통신망법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 부분은 삭제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법률에 반영해버리는 이 조삼모사와 같은 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교수 계약제 · 연봉제와 사립학교법

재단 인사권개입 심화 우려

비리 견제할 법적 장치 필요

최근 재단의 비리를 폭로하거나 독단적 운영에 반대한 교수들이 명확한 이유없이 재임용에서 탈락돼 재임용 심사과정에 재단의 인사권 개입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곧 시행될 계약·연봉제는 이러한 재단의 인사권개입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사립학교법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97년 2월말 덕성여대 한상권 교수는 뜻밖의 일을 당했다. 뚜렷한 이유없이 재임용과정에서 탈락한 것. 다음해 6월 학교인사위원회에서 복직을 결정하지만 이사회는 묵묵부답이었다.

한상권 교수는 복직을 요구하며 학내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는 등 2년여 항의한 끝에 복직됐다. 이 과정에서 교원인사에 간여해 온 박원국 이사장은 교육부 감사 끝에 해임됐다. 그러나 1년만인 99년 다시 재단으로 복귀한다.

한상권 교수는 "지난해 힘겹게 비리재단을 학교에서 몰아냈지만 재단은 아무런 법적제재조치 없이 불과 1년만에 다시 돌아왔다"며 비리인사의 학교복귀가 허용되는 사립학교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립학교법에는 비리인사 복귀 및 임원취임 금지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립학교법 제22조에 의하면 해임되거나 임원취소승인이 내려진 인사도 2년후에는 다시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한상권 교수 뿐만아니라 청주대 박정규 교수, 경성대 김진해 교수 등 재단의 비리를 폭로하거나 이사장의 입장에 맞서면 예외없이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돼왔던 것이 사실이다. 한상권 교수는 "재단은 반발하는 교수를 제거하는 방편으로 재임용제도를 악용해 왔다"며 "부패문제가 내부 폭로에 의해 드러났던 사립학교 대부분에서는 교직원의 대량징계와 재임용 탈락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교수 계약·연봉제'에서는 재임용제도의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계약 연봉제는 임용기간동안 계약조건을 정해 임용하고, 1년 단위로 실적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시행의 법적근거는 사립학교법 제53조 2항을 들 수 있다. 이 법조항에 의하면, 계약 연봉제는 전임강사나 부교수 외에 현재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들에게도 적용된다.

상지대의 박정원(경제학) 교수는 "계약·연봉제는 기간제 임용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정교수까지 적용되는 교수 계약·연봉제는 교수를 통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계약·연봉제가 시행될 경우 교원업적평가제와 재임용 심사 기준의 공정성 보장이 시급하다. 본교 교수회 심익섭(행정학) 회장은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현재의 평가기준으로는 올바른 평가가 불가능하다"며 "객관적인 기준과 투명한 평가절차 공개 없이는 연봉제시행이 불가능하며, 무엇보다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 계약·연봉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재단의 전횡과 비리를 견제 감시 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재임용 심사기준을 객관적으로 제정해야하며, 학내구성원들의 동의가 수반된 가운데 투명한 절차를 거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현중 기자
roket123@dongguk.edu

동국만평

임소희 takethepower@naver.com

사설

사이버총회 회칙 제정에 거는 기대

N세대는 정치·사회적 가치에는 다소 부정적이면서 경제활동과 자아실현에는 큰 관심을 보인다고 한다. 실제로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 학생회를 비롯한 운동권 학생들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반면, 쇼핑과 아르바이트, 자신의 흥미분야에는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N세대를 두고 개인화·파편화를 우려하기도 하며 반대로 급격한 기술발전에 잘 적응하여 전자민주주의를 발전, 보다 나은 시민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밝은 전망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본교 법과대학의 사이버 총회에 관한 회칙 제정은 전자투표 등을 학칙화 함으로써 사이버 상에서 총회를 열고 투표를 하는 전자민주주의를 전국 최초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모으는 기본적인 작업조차 어려워진 최근의 학생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속되어 생활하는 공간인 학교, 그리고 학생회와 소통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법과대학의 선례는 인터넷의 효과적인 활용을 통해 학생회 붕괴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봉사하겠다는 학생회 가운데 여전히 흔한 홈페이지 하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시대의 흐름은 그 사회에서 가장 대중적인 것이다. 따라서 학생회라는 대중사업을 하는 사람은 언제나 학생들의 관심사와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이메일로 학생회 소식을 발송하고 학생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관해 학생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은 지금까지 학생들의 무관심만을 탓해 오며 전전긍긍하던 학생회가 다시 학생 가운데 설 수 있는 길일 것이다. 한 단과대가 내딛은 작지만 소중한 시도가 새로운 소통과 논의의 장을 형성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총학 비대위 공식적으로 해명해야

총학 비대위의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하다.

최근 학생회에 잦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얼마 전 논란이 되었던 총학 비대위 확대간부 수련회에 대한 비대위측의 공식적인 해명도 없고, 이에 대한 총대의원회의 특별 감사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학생회의 미온적인 움직임에 학생들은 분노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줄줄이 터지는 학내사건 가운데 학생회와 연계되지 않은 사건은 거의 없다. 경주캠의 경우 총학이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학생기구보다 비대위에 대한 비난이 많은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여건과 환경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비대위는 학우들의 뜻을 대변하는 대표자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결성된 하나의 조직이 아닌가. 확대간부수련회나 그 이외의 여러 의혹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자세는 결코 문제해결의 열쇠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총대의원회 역시 마찬가지다. 학생회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하나의 입법기구이자 감사기구로써 그들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더 이상 이러한 의혹과 논란에 대해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해서는 안된다.

특별감사를 실시하기 보다는 3/4분기 정기 감사에서 확실한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총대의 입장과 곧 확대간부수련회의 예산을 공개하겠다는 총학비대위의 입장은 시일이 지나면 잊혀지게 마련이고, 이러한 두 기구의 행태는 학생회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기 십상이다.

거듭 말하지만 학생회간에 그리고 학생들간의 오해와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두 기구 모두 지금과 같은 자세는 버려야할 것이며, 공식적인 양측 입장이 동시에 표명되어야 할 것이다.

동대신문 DONGGUK UNIVERSITY PRESS 1950년 4월15일 창간(주간)

발 행 인 송석구
편집인겸주간 양영진
부 주 간 백승석
편 집 국 장 박상관
편 집 장 김진아

인터넷 동대신문 http://dgupress.dongguk.ac.kr
인터넷 동국대학교 http://www.dongguk.ac.kr
하이텔 ID dgpress 나우누리 ID 동대신문
천리안 ID dgupress E-mail dgupress@dongguk.edu
구독문의 : (02)2260-3491 · 2

서울캠퍼스 (우)100-715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3가 26
전화 (02)2260-3491 · 2 팩스 (02)2279-1270
경주캠퍼스 (우)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 707
전화 (054)770-2058 팩스 (054)770-2057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죄가 됩니까?

- 법과 금융 내규를 지키며 불의와 불법에 맞선 것이 죄가 되어 핍박과 고통을 당하며 가정이 파탄에까지 직면한 이운영 전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
- 우리는 동문과 수십년간 호적에 없는 형제처럼 깊은 인연을 맺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수없이 다짐하고 실천해 오지 않았는가!
- 대학 농어촌연구부 시절 불사조처럼 구농(救農)과 구국(救國)을 외치며 대세의 안일한 길을 가지 말고 고되고 외로울지라도 높고 맑게 자기의 분수를 지키는 나눔의 윤리를 선도해 나가며, 야망을 갖고 고뇌를 씹으며 성실하게 살자고 맹세하였던 동문을 우리 모두는 굳게 믿고 있네.
- 이동문 자네가 말했듯이 "지금 나는 도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시간을 갖기위함"이라는 것을 믿네.
- 이제 동문이 약속한 대로 정정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으로 검찰에 자진출두, 법정에 서서 권력의 칼을 든 무법자의 횡포에 대하여 양심있는 금융인의 참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네.

법인은닉죄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오흥명(농62), 고광윤(농59), 윤천영(농59)의 구속영장을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만에 하나라도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수사를 자행한다면 애국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함과 동시에 결코 모든 국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둡니다.

※ 9월 21일 12:00 서울지검으로 자진 출두한 양심있는 이운영, 불의와 불법에 타협하지 않는 이운영을 위하여 10만 금융인과 애국시민, 사랑하는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지속적 광고게재를 위해 국민은행 044-21-1141-233(예금주 : 구농복지회 권오갑)
농협 022-02-221753(예금주 : 구농복지회 권오갑) 구좌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운영을 사랑하는 구농동우회 회원 일동

2000년 2학기 예비군교육 소집

1. 교육대상자 : 1학기 교육불참자 및 2학기 전입자중 교육 미실시자

2. 교육일정

10. 4(수)	10. 5(목)
2시간, 4시간 대상자	6시간, 8시간

※ 예비군 연대본부에서 교육시간 확인 후 소집통지서를 수령하면서 교육일정 확인할 것.

3. 교육장소 : 노고산 종로·중구훈련장(219연대)

4. 유의사항

가.교육소집통지서를 필히 수령 할 것.

-통지서 교부일 : 2000.9.8 -28까지

-교부장소 : 예비군연대본부(본관2층)

나. 예비군복장 준수

-전투복,전투모,전투화,요대,고무링등

다. 훈련장 입소시간 준수 : 08:00까지 정문통과

라. 신분증 휴대

-신분증분실자는 예비군연대본부에서 사전 확인 바람.

동국대학교 예비군연대

초 청 특 강

"Zen, Poetry, and Social Engagement"
"禪의 세계, 詩의 세계"

- 초청강사 : Gary Snyder (시인, 美 UC Davis대 교수)
  ※ 통역 : 김영민 교수(영어영문학)
- 일 시 : 2000년 9월 27일(수) 17:00~18:30
- 장 소 : 90주년기념문화관 덕암세미나실
- 연사 약력

美 Reed College, Indiana Univ., UC Berkeley에서 문학, 인류학, 동양어문학 전공
1960년대의 대부분을 일본에서 살며 선불교 연구
1974년 『Turtle Island』로 시부문 퓰리쳐상(Pulizer Prize) 수상
1983년 『Axe Handles』로 American Book Award 수상, 그외 The Bollingan Prize, The Bess Hokin Prize, The Revinson Prize from Poetry, The Shelley Memorial Award 등 수상
현재 저명한 평화·환경운동가로 Nevada주에서 생태마을 공동체 운동 주도중

불 교 대 학 원

소독 및 방역작업 시행 계획

일정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건물의 각 사무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정: 9/30(토) 혜화관, 교수회관, 도서관, 혜화별관
   10/7(토) 명진관, 과학관, 강의동, 다향관
   10/14(토) 본관, 원흥관, 학생회관
   10/21(토) 정보문화관, 계산고시학사, 계산관
   10/28(토) 학림관, 금강관, 체육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시 통보 예정)
2. 협조 및 주의사항
   사무실내 음식물 및 식기 관리를 철저 요망 (작업 전날 음식물 및 식기, 다기 등을 노출이 안되도록 싱크대나 냉장고에 반드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사 무 처

동악로

호적없는 형제

"우리는 자네가 '지금 나는 도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일세'라는 말을 믿네"

지난 18일자 몇몇 일간지에 '법과 규정을 지키는 것이 죄가 됩니까?'라는 제목으로 실린 이 광고는 오늘날 우정의 의미를 되짚어보게 하는 계기가 마련해주었다.

이 광고의 주인공은 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대출보증압력 의혹을 폭로한 이운영 전 신용보증기금 영동지점장으로 이씨를 돕기 위해 본교 동문들이 뜻을 모아 게재한 것이다.

이운영씨는 본교 농학과 66학번으로 평소 합리적인 판단과 원칙을 고수한다는 평을 듣고 있다.

이러한 평은 재학시절 농촌일손돕기와 문맹퇴치운동 등의 농어촌봉사활동을 하며 농어촌연구회 졸업생 모임인 '구농복지회' 회원간에 쌓여진 믿음을 통해 얻어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기반으로 동문들은 '구농복지회'가 중심이 되어 이씨의 도피활동부터 검찰에 자진 출두하기까지, 법적인 처벌을 각오하고 이씨를 도운 일은 세간에 화제가 되었다.

아주 먼 옛날, 등에 시체를 업고 친구집을 찾아다니며 누명을 쓴 자신을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내용의 일화가 생각난다.

갈수록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는 자만이 인정받을 수 있는 삭막한 현실이다. 그 안에서 보여지는 끈끈한 우정을 특별하게 바라보는 시선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현재 이씨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마친 후 체포되어 본격적인 수사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씨를 도왔던 몇몇 동문들은 수배중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교 동문들은 지속적인 광고를 게재하여 이씨 구명활동을 벌이고자 모금운동을 벌이고 있다.

또한 검찰이 이씨에 대해 강압수사를 할 경우 집단시위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을 결의하였다.

옳고 그름에 대한 판가름에 앞서 30년이 넘도록 지켜온 우정으로 '정의'를 향해 다가서겠다는 선배들을 보면서, 우리의 내면에도 그러한 출발의 씨앗들이 자라나고 있기를 기대해본다.

김은선 기자
ppuzic@dongguk.edu

박정훈교사 민혁당 활동혐의 조작사건

국가보안법 개정 앞둔 '정치적 복선'인가

수사과정상 증거 불충분 · 불법연행 등 의혹 많아

"우리모두가 증인이예요"

지난 9일 명동성당에서 '박정훈 선생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서울 교육주체 결의대회'가 열렸다.

지구과학과 주체사상의 공통점은 'ㅈ' 자밖에 없다

전교조 서울지부 주최로 열린 이번 집회에 교복을 입고 참석한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이하 이화외고) 재학생들에게 "이제 수능시험이 며칠 남았죠?"라고 묻자 학생들 사이에서 야유에 가까운 탄성이 흘렀다.

선생님에게 주체사상을 배웠냐는 물음에 "지구과학에 주체사상은 없어요. 우리 선생님은 삶과 과학을 가르쳤을 뿐"이라고 대답하는 이화외고 학생들에게 수학능력 시험을 걱정하는 얼굴은 찾아볼 수 없었다. 수학능력 시험을 68일 앞둔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빈자리는 안타깝기만 하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지난 8월 23일 이화외고 지구과학 담당 교사인 박정훈(34세)씨를 민족민주혁명당(이하 민혁당) 활동을 해온 혐의로 체포했다.

이어 지난 2일 국정원은 박교사의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상담편지를 발견하고는 박교사가 교단에서 주체사상을 교육해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결정적 증거라며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

6 · 15선언 역행하는 공안탄압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국가보안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은 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정원은 박교사에 대해 서울대학교 84학번으로 학생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1992년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민혁당에 가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체사상 교육 등의 활동을 벌였다고 발표했다.

특히 1990년부터 반미구국 중 · 고등학생 단체를 조직했다며 박교사가 가입시켰다는 당시 중학교 학생의 진술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박교사는 국정원 조사과정에서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박교사와 함께 '열린학교' 활동을 벌여온 청소년공동체 '희망' 대표 김진숙 서울시청 청소년 자문위원은 "박선생님의 열린학교 활동을 두고도 주체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치부했다"며 "열린학교를 지원한 서울시청은 민혁당의 하수조직이고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인가"라며 용공조작사건임을 주장했다.

1980년대 정치현실 속에서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세력이 형성되었다. 이들을 기반으로 민혁당이라는 주사파 조직이 김영환씨를 중심으로 활동한 것이 작년 8월 국정원에 의해 밝혀졌다.

그러나 수뇌부 김영환씨를 비롯한 간부들은 공소보류 등으로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작년에 이미 확보했을 관련자 명단을 근거로 1년이 지난 현재 관련자 검거에 돌입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여겨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박정훈 교사 구속'이 단지 민혁당 연루자에 대한 마무리 수사인 것뿐인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오는 10월초 박교사에 대한 기소여부가 결정된다. 더 이상 국민은 우매한 대중이 아니다. 한달 후 정기국회에서 있을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김윤미 기자
kiza41@dongguk.edu

사진/한겨레21

지난 9일 명동성당에서 '박정훈 선생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가 열렸다.

"우리는 지구과학만 배웠어요"

졸업생, Daum 카페 통해 구명활동 벌여

'박정훈 선생님 석방을 위한 이화외고 졸업생 대책위원회'(이하 졸업생 대책위)는 인터넷 사이트 Daum에 카페를 개설해 서명운동과 모금운동 등 박교사 구명활동을 벌이고 있다. 졸업생 대책위는 박교사의 기소 여부 판정에 대비해 전교조, 민혁당 대책위와 함께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졸업생 대책위의 김지현(서강대4) 공동대표를 만나보았다.

-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 박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가르쳤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것은 국가보안법의 개정 및 철폐 분위기를 잠재우려는 세력의 조작이다.

- 박정훈 선생님에 대한 소견은.

= 선생님이 처음 부임하셨을 때 지구과학을 배웠다. 초임 교사여서인지 특별한 기억은 없다. 하지만 후배들이 회상하는 박선생님은 수업에 지친 학생들에게 HOT와 신화의 뮤직비디오를 보여주시고, 별자리에 관심을 갖도록 천체망원경을 설치하는 등 학생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이었다.

- 이화외고 재학생들은 선생님 구명의 순수성을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하던데. 재학생들의 활동은 어떤가.

= 재학생 대책위가 꾸려져 대표 3명과 각 반별로 대책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책위의 활동은 학생들에게 집회를 공지하고 인터넷을 통해 외부에 사건을 알리는 정도이다. 하지만 지난 9일과 마찬가지로 30일에 열릴 집회에 참여할 예정이며, 학생들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일부 여론 때문에 학교측에서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조선일보 거부 시민연대 발족식

조직화된 운동으로 파급효과 기대

기고거부 2차 지식인 선언도 가져

사진/김도영 기자

지난 20일 '조선일보 반대 시민연대'가 발족식 직후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선일보를 찢고 있다.

"반개혁 · 반통일 신문 조선일보를 거부합니다"

조선일보를 반대하는 시민연대(이하 안티조선연대)가 지난 20일 안국동의 철학카페 느티나무에서 발족식을 가진 후 아울러 '조선일보 기고거부 2차 지식인 명단'을 발표했다.

지난 8월 7일 강준만(전북대 교수), 성유보(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김정란(상지대 교수) 등 약 150명 가량의 '조선일보 기고 거부 1차 지식인 선언'에 이어 이번 2차선언에는 오종렬(전국연합 상임의장), 진 관(불교언론대책위 대표)을 비롯한 152명이 참여했다. 또한 본교의 홍윤기(철학), 임호일(독어독문학)외 4명의 교수도 포함되어 있다.

오종렬 상임대표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조선일보에 대한 반대를 분명히 하지 않고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역사적 소명에 부응할 수 없다"며 안티조선연대 조직의 의의를 밝혔다.

안티조선연대는 1단계에서 △조선일보 취재 · 인터뷰 · 기고 거부 △조선일보 집중 · 기획 모니터링 △조선일보 항의전화 · 방문 등을 2단계에는 △조선일보 허위 · 왜곡보도 전시회 △시민 서명운동 및 각종 이벤트를, 3단계에는 △수구언론 퇴진운동 △구독거부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그 외에도 11월 중 강준만, 김정남, 홍세화씨 등이 안티조선 시민강좌를 열고 1937년 이후 친일행각을 했던 조선일보의 기사모음 자료집도 준비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거의 소극적 운동방식과의 차이를 묻는 기자의 물음에 김동민 상임대표는 "과거 운동방식이 시민의 참여를 유발하지 못하여 반조선일보 운동을 가속화하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현재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인터넷 시대인 만큼 실효성 있는 조직적 운동이 가능하다"며 안티조선연대의 파급효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안티조선연대의 발족식 이후 행사에 참여한 약 50여명은 곧바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다.

"지역감정 부추기고 역사왜곡 자행하는 조선일보 거부한다" "냉전유물 반통일 신문 조선일보 반대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조선일보 찢기와 풍선 터뜨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를 거부하는 시민연대의 조직적 움직임은 과거 산발적으로 진행되었던 조선일보 반대운동을 가속화시킴으로써 우리사회내 개혁과 통일을 반대하는 세력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손상민 기자
neo9292@dongguk.edu

탈수습기

힘찬 도약 꿈꾸는 출발선에서

이제 곧 걸음마를 시작하는 어린아이 같다. 한 발 한 발 내딛을 때마다, 조심스럽기만 하다. 정기자라는 이름표를 다는 이 순간이 설레기보다는 두려운 것도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나에게 신문사는 탈출구였다.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발버둥쳤던 지난 한 해동안, 난 자신을 많이 잃었던 것 같다. 대학생활을 누구보다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신문사를 선택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대학생활의 무료함을 떨쳐 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기자라는 이름만으로도 많은 것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신문사는 그리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은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고, 치열하게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느 것 하나도 얻을 수 없었다. 신문사가 나를 갉아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수록 신문사 생활은 지루했고 밖으로 뛰쳐나가고만 싶었다. 하지만 나의 이런 생각들은 5.18광주현장학습과 통일대축전을 겪으면서 달라졌다.

내가 알고있던 것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한층 나를 성숙하게 했다. 어려운 일이 닥칠 때면 자연스럽게 내가 아닌 우리를 떠올리게 됐으며, 이젠 내 신념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신감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도 잠시 잠깐 나를 돌아보는 여유를 찾을 수 있었다. 나도 모르게, 나는 한 뼘씩 자라고 있었다.

아직도 신문사는 내게 낯설다. 익숙하지 않은 원고지와 신문냄새, 계속되는 회의의 연속, 기사마감의 긴장감들이 6개월 동안 나를 좌절하게 했다. 앞으로도 그럴지 모른다. 하지만 이런 신문사 활동들이 넘어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 줄 원동력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기 마련이다. 정기자가 되어서도 새로운 것을 찾아 도전하는 힘을 기르고 싶다. 부족한 점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항상 '처음처럼'이란 말을 되뇌이며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다.

지금, 출발선에서 힘찬 한발을 내딛어 본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채우기 위해 비울 수 있기를

세상에 쉬운 일이란 없다. 내게 주어진 일들이 힘들게 느껴질 때마다 수없이 이 말을 되뇌었다.

'내가 선택한 일에 책임을 다하자'

언제나 생각하고 있지만 지키기 힘든 나 자신과의 약속이다. 하지만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하루 하루를 살게 해주는 이정표이기도 하다.

신문사에 들어와서 내가 겪었던 일들은 생소함 때문에 더욱 크게 과장되었다. 경험이 없기에 더 힘들게 느껴졌고,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다. 취재하고 기사 쓰고 조판을 하는 반복적인 생활에 대한 중압감이 줄곧 나를 누르고 있었다.

'채우기 위해 비울 수 있는'여유를 배우고 싶지만 아직 그 길은 멀기만 하다.

자신의 삶을 놓고 힘들게 고민할 수 있다는 것은 젊음의 특권이다. 그리고 신문사는 내게 '경험'이라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많은 것을 보았고, 들었다. 그것에서 많은 것을 느꼈고, 생각했다.

그리고 세상이 생각한 것만큼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진지하고 꾸준히 고민할 수 있는가이다. 지금은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도 지금의 고뇌가 미래의 나를 살찌울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나는 정기자가 된다. 수습기자일 때는 실감하지 못했던 '정기자'라는 이름에 대한 책임과 무게를 느낀다.

정기자가 되었다는 뿌듯함보다 걱정이 앞선다. 나는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고 부족한 것도 많다.

하지만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실'을 보도하며 독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신문사 안에서 제 목소리를 잃지 않으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숙제도 성실히 풀어나갈 것이다. 지금의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려는 의지이다.

훗날 이 시절을 돌이켜 보았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순간 순간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싶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자

매미는 유충으로 땅속에서 7년을 생활한 후에야 비로소 매미가 될 수 있다. 단 2주일의 삶을 위해 7년의 힘겹고 고된 과정을 이겨내는 매미의 심정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다.

지루하고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신문사는 도전이며 탈출구였다. 고민 끝에 선택한 도전이였기에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앞으로를 위한 준비라고 여겼기에 끝내 힘든 내색도 하지 못했다. 학과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은 마음을 접으면서도 채우기 위해 비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처음 출입처를 배정받던 날 취재에 대한 두려움과 점점 늘어만 가는 기사분량 그리고 잘 써야겠다는 강박관념에 나는 곧 질식해 버릴 것만 같았다.

'내가 왜 신문사에 있는지' 끊임없이 되물었다. 계속되는 고비와 그때마다 찾아오는 중압감에 주저앉고 싶었다. 막 포기하려던 순간 도서관에서 동대신문을 읽고 있는 많은 학생들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만든 신문을 읽는구나'

기자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신문사로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독자들을 위해서라도 내 책임을 다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독자가 찾는 신문'

이제 보답하고 싶다. 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나에게 남겨진 몫인듯 하다. 정기자로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같이 생각하는 기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다.

7년 동안의 준비를 마치고 성충이 되려는 매미처럼 6개월 간의 준비를 서서히 마무리 해야 하는 지금 설레임과 두려움이 교차한다.

막 조그마한 언덕을 하나 넘었다.

이제 다가올 높고 험한 산들도 당당하게 넘어갈 것이다.

김혜진 기자
atom@dongguk.edu

세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배움

지금껏 주어진 것만 수동적으로 따르던 내게 신문사는 선택의 문제였다. 대학에 대한 기대가 쉽게 허물어져가던 학기초, 수습기자 모집광고를 보게 되었고 그 곳이 내 생활의 돌파구가 되어줄 것 같았다. 하지만 신문사는 결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기에 또다른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탈수습기를 쓰는 지금 난 6개월 전의 선택에 대해 생각해 본다.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내 자신을 제대로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쉴새없이 바쁜 일정이 계속되었다.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그들의 여유있는 생활을 들을 때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 한때 부러워했던 친구들에게 "난 너희들의 여유로운 생활 이상으로 가치있는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바쁜 일정을 보낼 때면 그만큼 치열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에 흐뭇하곤 했다. 이전까지 알지 못하던 세계를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경험했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 비록 작은 목소리를 내곤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워 보였다. 그리고 그들을 조금씩이라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날 발견할 수 있었다. 신문사는 철없는 스무살의 풋내기에게 점점 세상을 알게 하고 애정을 느끼게 해주었던 것이다.

이제 비상을 준비하려 한다.

정기자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이전보다 훨씬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책임'이란 두 글자는 항상 날 뒤따르는 짐이 될 것이다. 정기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기에 사소한 일조차 잘 해내지 못하는 지금의 난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독자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려 한다. 그리고 '치열하고 아름답게 살았던 시절'이라 생각할 수 있도록 자신을 채찍질 해 나갈 것이다.

우정현 기자
caesar2000@dongguk.edu

3만 독자에게 희망을 전하는 기자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질병과 고통으로 가득 찬 상자를 열었던 그리스 신화의 '판도라'처럼 나 역시 단순한 호기심으로 신문사에 도전했다.

하지만 생각만큼 신문사가 만만치 않은 곳임을 깨닫는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유난히 아침잠이 많았던 내가 출근 시간을 지키기 위해 가파른 언덕을 헐떡이며 오를 때나, 바쁜 일정으로 하나 둘 친구들과 멀어질 때면 신문사는 나에게 인류 재앙의 근원인 '판도라의 상자'처럼 느껴졌다.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내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두렵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난 6개월을 신문사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신문사에서만 경험할 수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과 사람들 때문이었다. 수습학교, 노동자 집회, 농활, 통일 대축전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그 동안의 일들은 대학 시절의 자유와 바꾼다 해도 아깝지 않을 경험들이었다.

무엇보다 내가 얻은 가장 값진 선물은 신문사에서 나와 함께 생활하는 동기들과 선배들이다. 힘들 때마다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동기들과 끝없는 질책과 격려로 나를 담금질해주던 선배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나와 내 동기들은 우리 스스로를 '잡초'라 불렀다. 수습 기간 내내 우리는 수없이 밟혔고 더욱 강해질 수 있었다.

쓰디쓴 아픔을 감내하면 성숙할 수 있듯이 내게도 고통으로 인한 상처가 훈장처럼 남아 나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판도라가 열었던 상자에서는 결국 '희망'만이 남았듯이 신문사 역시 나에게 또 다른 삶의 희망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그 희망을 3만 독자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도 잊지 않겠다.

손상민 기자
neo9292@dongguk.edu

정기자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 뛴다

오늘도 나는 뛴다. 지하철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이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뛰었건만 또 버스를 타고 집에 가게 생겼다. 매번 버스를 타고 가며 언제까지 이 일을 반복해야 하는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수많은 혼란들이 나를 흔들리게 한다. 이런 저런 생각들로 집에 오는 길은 언제나 멀고 힘들게만 느껴진다.

기자가 되고 싶었다. 기자는 내게 동경의 대상이었다. 누가 장래희망을 물으면 난 언제나 망설임 없이 기자라고 대답했다. 6개월 전, 꿈을 위해 신문사라는 길을 택했고 42기 수습기자란 이름으로 6개월을 지내왔다. 그러나 기자의 길은 생각만큼 그리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계속되는 회의, 기사마감, 취재의 반복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벅찼다. 다람쥐 쳇바퀴 돌 듯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느덧 신문사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힘들어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동기들이 나를 붙잡아 주었고 매번 나오는 새로운 신문은 힘든 것들을 잊게 해주었다. 이제 수습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고 정기자가 된다. 정기자가 되면 그 동안 내가 느꼈던 일들이 우스울 정도로 벅찬 일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지금처럼 힘들다고 물러서지 않겠다.

힘이 들 때마다 흥얼거리는 노래가 하나 있다.

"한판 싸움이 다가올수록 우리 가슴은 처음처럼"

힘든 일이 생기면 처음 기자가 되었을 때의 마음을 생각해본다. 동기들과 신문사에 나의 의지를 더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오늘도 나는 뛴다.

이제 막 페이스를 찾아가는 마라톤 선수처럼 정기자의 위치를 찾아가고 있다. 기자의 길이라는 레이스 그 끝에서 웃을 수 있도록 한발한발 뛰어갈 것이다.

엄태규 기자
snail11@dongguk.edu

책임과 노력 다할것을 다짐

TV를 보면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기자들이 개미떼처럼 몰려든다. 나는 늘 사건의 현장을 누구보다 빨리 찾아가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가 부러웠다. 단순히 사건의 현장에 있고 싶다는 생각에 기자가 되고 싶었다.

신문사에 원서를 내고 예상치 못했던 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리고 결국 고민 끝에 평범한 대학생활을 버리고 신문사를 택했다.

하지만 6개월의 수습기간은 아쉬움으로 가득하다. 출입처 문앞에서 고민하기도 했고 '수습'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 머뭇거리기도 했다. 이제야 '수습기간이 정말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을 한다. 글을 못써도 창피하지 않을 수 있고, 실수를 해도 만회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6개월이었다.

취재하는 것이 마냥 좋아 보여 들어온 신문사에 이제는 책임감을 느낀다. 가끔 내가 만든 신문을 읽는 독자를 보고 있으면 가슴 한 구석이 뿌듯해진다.

독자의 관심 속에서 독자들을 위해 발로 뛰는 기자가 되고 싶다. 정기자는 기사에 내 이름 석자를 걸고 독자들 앞에 나서는 기자로서의 첫걸음이다.

6개월의 수습기간동안 내가 목표로 삼았던 것은 신문사가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아직도 그 마음 그대로이다. 매주 나오는 신문을 보면서 나의 땀방울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음을 본다. 또한 정기자의 첫걸음을 내딛으며 처음 마음가짐과 정기자다운 책임감을 잊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다짐해본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낮은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기자

나는 특이해서 가까이 있는 사물이 두 개로 보인다. 둘 중 하나는 진짜고, 나머지 하나는 가짜이다. 이럴 때 눈에 힘을 주고 다시 보면 진짜를 가릴 수 있다. 책상에 앉아서 6개월의 수습기간을 곰곰이 되돌아 보았다. 이상과 현실의 모습이 겹쳐 있었다.

신문사와 나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다. 신문사에 별 매력을 느끼지 못했지만 친구와 같이 시험을 치뤘고 합격하게 되었다. 그리고 6개월의 신문사 생활이 시작되었다. 막연히 멋있고 화려하게만 보이던 '기자'가 된 것이 마냥 기뻤다. 하지만 꽉 짜여진 신문사 일정은 기쁨마저 바래게 만들었다.

기사를 쓰면서 스스로 부족함을 느꼈고, '내가 왜 이일을 하고 있는지'라는 의문이 들었다. 1학기가 끝날 무렵 모든 것이 답답해졌다. 몇 번의 일탈을 통해서 벗어나려 했지만 해답은 결국 나에게 있다는 걸 깨달았다.

6개월 동안 사회부 수습기자로 지내면서 각계각층의 민중들을 만날 수 있었다. 전에는 몰랐던 그들의 고통과 요구에 귀기울이게 되었다. 그러면서 대학생으로, 나아가 학생기자로서 내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했다.

2개로 겹쳐 보이던 수습기간 중 하나의 모습은 기자에 대한 막연한 환상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잔상에 불과했다. 실체는 사람에 대한 관심이었다. 진짜를 보았다고 사람에 대한 관심이 끝난 것은 아니다.

앞으로 동대신문사의 정기자로서 나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을 낮은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일 것을 3만 독자 앞에 약속한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생명력 있는 기자 될 것을 약속

풀은 비바람에 의해 울다가 눕고 만다. 어렵게 몸을 일으키면 더 큰바람이 다시 눕게 만든다. 그래도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난다.

힘든 고교 생활을 뒤로 하고 대학에 들어온 나는 대학에서의 무절제를 만회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생활했다. 하지만 항상 가슴 한 구석이 허전함을 느꼈고 허전을 채울 무언가를 찾아 헤매다 우연히 발을 들이게 된 곳이 동대신문사였다.

신문사라는 공간이 나의 생활에 변화를 주리라 믿었지만 이곳은 내게 낯선 환경에 빨리 적응해 주기를 더 원했다. 아침 일찍 출근해 신문 배부를 시작으로 수많은 취재, 밤늦게까지 진행되는 각종 회의, 회전무대등 빡빡하고 바쁜 일정 속에서 수습 초기에 희열도 많이 느꼈지만 너무 많은 힘을 한꺼번에 쏟은 탓일까. 난 점점 또 다른 무기력함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순간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방황과 일탈을 거듭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동대신문을 짊어지고 있다는 생각은 나를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게 만들었고 좋은 신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게끔 했다.

신문사가 내게 안겨 주는 짐은 이제 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기자로서 더 큰 날개를 펼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고난을 헤쳐 나가는 법을 배운 수습기자 생활을 접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정기자로 거듭나려 한다.

그리고 끊임없는 생명력을 가진 풀과 같은 기자가 될 것을 독자에게 다짐한다.

형진우 기자
sniper@mail.dongguk.ac.kr

치열하게 고민하는 기자 되고싶어

'평생을 의미 없이 살아가기 보다 하루를 살아도 고민하며 살아라' 철모르던 중학교 시절 엄하셨지만 내 인생에 지표가 되어 주셨던 은사님 말씀이 떠오른다.

매일 사소한 고민으로 살아가던 내게 그 당시 '고민'의 의미는 그저 얄팍한 것에 그칠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날 나를 지탱해줄 만한 버팀목을 찾아 헤매던 내 발걸음은 동대신문사라는 곳에 머물러 있었다.

6개월간의 수습생활 속에서 낯선 이들을 동기라 부르며 의지해야 했다. 또 매주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기사마감과 사투를 벌여야 했던 것이 나에게 피를 말리는 고통처럼 느껴졌다. 신문사는 어려움을 안겨 주면서도 단순한 고민으로 허덕이던 나에겐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색다른 고민을 하도록 만들었다. 정기자를 앞둔 지금 나는 이전의 단순한 고민을 뒤로하고 신문과의 씨름을 준비하려 한다.

아직 '수습'이라는 이름표가 더 친근한 나에게 '정기자'라는 새로운 이름표는 두려움과 부담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내가 가졌던 두려움과 부담은 현실이 아닌 기우로 그치게 되리란 걸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신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남보다 먼저 알고 그것을 알려야 하는 과정에서 나는 용기를 더 배워 나갔다.

이제 방황했던 수습기자 생활을 뒤로하고 보다 성숙하고 참된 모습의 정기자가 되고자 게으름과 방만을 버리려 한다.

그리고 언제나 치열하게 열정을 다하는 정기자의 모습으로 독자들의 충실한 눈과 귀가 되기 위해 오늘도 고민한다.

김남정 기자
hanaby@mail.dongguk.ac.kr

달하나 천강에

올림픽과 환경

이 영 경
자연대
조경학과 교수

이번 올림픽은 '환경 친화적 그린 올림픽'이라 한다. 여러 자료를 보면 시드니 올림픽은 경기장 건설과정부터 수질관리, 교통계획, 건물 및 물품 재활용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환경친화'를 적용하고 있다.

우선 경기장이 건설된 올림픽 파크는 산업폐기물 매립장을 재개발한 곳이며, 기존 경기장을 최대한 활용하고 새로운 경기장의 건설을 최소화한 데서 환경에 대한 고려를 엿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기장은 에너지 절약, 수질오염 방지, 자연적인 채광과 환기를 유지하도록 설계되고 건축재료도 모두 환경 친화적인 것을 사용했으며, 건축과정에서 생기는 쓰레기도 최소화했다.

특히 기존의 전기 공급장치에 비해 유해가스를 40%정도 감소하도록 설계된 환기장치와 천장의 빗물 재활용 장치, 관중석을 고려한 자연 채광장치 등은 매우 우수하며, 발생하는 쓰레기의 80%를 재활용하도록 계획했다.

대기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해 대중교통수단은 압축 천연가스(CNG)를 이용하고, 올림픽 관람객은 무료 승차토록 하고 있다.

또한 모든 올림픽 공식 지정 제품은 내구성과 제품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리 평가됐고, 이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계획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것은 다행스러움과 착잡함이다. 올림픽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전 세계인들은 환경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확인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사례를 마련한 것은 희망적이다. 그러나 이런 노력과는 전혀 별개로 펼쳐지는 내 주변을 보면 울적해진다.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쓰레기들, 청소하는 아주머니 앞에 미안한 생각조차 없이 담뱃재를 털고 담배꽁초를 버리는 학생들, 학기 중 휜한 대낮에도 행사의 일환으로 버려진 빈 막걸리통들. 특히 축제 때마다 온 학교에 널려지는 쓰레기와 일회적인 물품의 낭비는 대학인에게 기대되는 희망을 가리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올림픽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것을 잠시의 심심풀이 대화거리로 삼아야 하는가, 아니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보다 가치 있는 무엇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선택은 우리들 개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세계 통과의례 페스티발 2000

인생의 구비, 축제 한마당으로

지구촌 관혼상제 한 곳에 … 세계속 한국문화 다시 보는 계기

'세계 통과의례 페스티발 2000'이 오는 29일부터 남산골 한옥마을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통과의례라는 주제로 다음달 3일까지 계속되며, 세계 각국의 통과의례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최초의 문화예술행사이다. 통과의례의 옛 모습을 충실히 재연하여 관람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으로, 인도네시아 발리와 중국 윈난성의 통과의례도 선보인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겪는 '관혼상제'의 의례와 세시풍속을 의미하는 통과의례는 조금씩의 문화적 차이는 있겠지만 모든 사회에서 뜻깊은 행사이다.

'관'은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성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민족은 남아가 관을 쓰는 관례와 여아가 쪽을 지르는 계례를 치른다.

본사사진자료

행사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발리의 전통 상여행렬 모습

'혼'은 성년식과 혼례를 모두 설명하며 함보내기, 신행 등의 풍습이 전해진다. '상'은 사람이 죽었을 때의 예를 의미하며, '제'란 죽은 사람의 영혼에 대한 의례로 사망한 날 지내는 기제사와 4대조 이상의 조상에게 지내는 시제가 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9일 '새천년, 씻김과 맞이'라는 주제의 전야제를 시작으로 오는 30일 새천년 통과의 문 '개막 퍼레이드'로 본격적인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한국의 전통제례무, 동편제 판소리 마당, 심우성의 얘기장사 등이 공연되며, 혼례와 관·계례 시연, 사진전시가 준비되어 있다. 또한 통과의례 관련 영상자료 상영과 이색혼례, 죽음체험 등과 같이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문화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 날에는 '상극과 상생'이라는 주제로 20세기에 버려야 할 것들을 관에 담아 대형 상여에 싣고 행사장 곳곳을 도는 행렬을 재현한다. 이어 행사에 참가한 각 단체의 공연물을 한자리에 모아 함께 아우르는 흥겨운 뒷풀이 장이 펼쳐진다.

이와 관련해 행사의 한 관계자는 "세계 통과의례 페스티발은 일회적 국내행사가 아닌, 21세기 문화상품으로 발전시켜 나갈 장기 아이템"이라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밝히며, "우리의 미풍양속을 지키려는 관심과 더불어 세계 속의 한국을 뽐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21세기 '세계 통과의례 페스티발'이 지구촌 세계인의 관심 속에서 펼쳐질 것을 기대해 본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도시 속의 작은 숲 체험'을 다녀와서

자연과 하나되는 여행을 떠난다

도시 벗어나 자연 느끼는 계기 … 홍보부족 아쉬워

회색도시를 벗어나 짙푸른 숲 속으로 떠나는 자연체험은 상상만 해도 즐거운 일이다. 그만큼 현대인들은 복잡한 도시생활에 지쳐가고 있다. 사실, 환경이나 생태를 고려하지 않고 값비싸기만 한 대형아파트와 고급빌라에서 생활하는 이들에게 자연을 찾겠다는 심미적 욕구가 생겨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이전에 모든 격식을 떨쳐버리고 자연과 하나되는 열린 마음부터 가져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바로 경주 생명의 숲에서 주최한 '도시속의 작은 숲 체험'이다. 지난 24일 황성공원에서 천군동 쌍탑, 보문단지까지 이르는 코스를 통해 숲과 나무 그리고 문화유산을 살펴보는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다.

자전거 하이킹을 즐기면서 △숲이 주는 혜택 △환경 교육 △문화재 탐방 등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오는 10월8일 '살아있는 문화재 노거수(보호수)를 찾아서'라는 테마로 천연기념물인 오류동 나무와 소현리 느티나무를 둘러보고, 계속해서 22일 '토함산의 단풍과 함께 하는 숲 체험'이라는 이색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김지혜 기자

나무와 벤치가 어우러져 있는 경주 황성공원

숲은 계절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수십 수백 가지, 때로는 수천 가지 종류의 나무와 동·식물로 구성되어 있어 그것을 쉽게 이해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다. 그렇다고 숲을 단순히 생태적으로만 관찰하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나무와 숲은 인간의 생활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에 문화와 역사의 관점에서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행사는 숲과 문화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와 관련해 생명의 숲을 이끌고 있는 박상만 씨는 "경주는 자연과 문화유적이 어우러져 있는 유리한 지역적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행사참여 비율은 낮은 상태"라고 홍보 부족의 아쉬움을 전한다.

숲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원이다. 도시화와 산업화가 빚어낸 인간소외와 물질만능은 물론이고 자연과 유리된 삶을 치유하는 안식처 역할을 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숲은 경제와 환경,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제 숲을 통해 눈으로, 소리로, 냄새로 전해오는 문화와의 만남을 준비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인간과 자연이 하나되는 일은 바로 숲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김지혜 기자
wisdom@mail.dongguk.ac.kr

시사회를 다녀와서

'으랏차차 스모부'

둥근 모래판에 윗통을 벗어던진 남자들이 아낙들의 응원을 받으며 서로를 들었다 놓았다 한다. 바로 우리의 전통민속경기 씨름이다.

그러나 여기 모래판과 샅바가 아닌 '도효'라는 둥근 흙판에서 '마와시'라는 천을 두른 남자들이 모였다. 일본의 전통경기 스모를 소재로 젊음의 좌절과 극복을 그려낸 영화 '으랏차차 스모부'는 일본인이 아니면 잘 모를 스모경기를 유쾌한 웃음으로 풀어내고 있다.

그러나 영화가 끝나고 나면 씁쓸함이 가득하다. 대학생 슈헤이가 졸업을 하기 위해 억지로 스모부에 가입하면서부터 시작되는 이 영화는 우리의 씨름이 대학에서 인기있는 스포츠가 아니듯, 일본의 대학생에게 스모란 단지 스모부만의 운동인 것으로 비쳐진다.

또 졸업을 하기 위한, 좋아하는 선배를 만나기 위한 수단일 뿐인 것이다. 전통문화를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보는 젊은 세대들의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고 했다. 이 영화는 가장 일본적인 것을 통해 보편적인 정서를 이야기하며 젊음의 열정이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단지 학점이나 좋아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기 위해 스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매 시합마다 긴장한 탓에 설사를 하거나 두려움에 상대방을 바로 보지 못하던 사람도 차츰 스모의 매력 속에서 자신감을 찾아가고, 억지로 들어간 스모부를 결국엔 스스로 지켜나가는 슈헤이를 통해서 변화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바로 전통문화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도 이야기한다.

'으랏차차 스모부'는 바로 가장 전통적인 소재로 가장 현대적인 젊은이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의 모습을 그려내는 영화인 것이다.

표은영 기자
pisik20@dongguk.edu

소 강 당 영 화 제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

◆ 일시 : 오는 27일 (수) 5시
◆ 장소 : 학림관 소강당

32대 자주적 총학생회 16대 학생복지위원회

매체비평

- 광고편

'이동통신'

"크리에이티브 없는 광고,
유행어를 위한
죽은 광고에 불과하다"

본사자료사진

신세대들에게 주목받은 '018러브레터' 광고

요즈음 이동통신 광고가 거의 전 매체를 휩쓸고 있다. 동시에 화장품이니 제과류 등 전 업종에서 골고루 탄생하던 광고 유행어도 이동 통신 광고가 주도한지 오래다.

인구에 회자되던 유행어들은 따봉, 산소 같은 여자, 주고싶은 마음 먹고싶은 마음 등 여러 업종에서 히트 광고가 탄생했었다. 최근의 히트 광고들을 살펴보면 '내 꿈꿔, 묻지마 다쳐,난 공짜가 좋아,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등 사회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킨 것들이 많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대부분 PCS나 셀룰 러폰 같은 이동 통신의 광고가 전 광고 매체를 휩쓸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동 통신의 경우 연간 5백, 1천억원 이상의 엄청난 광고비를 쏟아 붓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월 5,6억 많아야 월 10억이면 원하는 타겟에게 충분히 도달 할 수 있다는 점을 돌이켜 볼 때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또한 이런 물량전을 통해서 소비자를 광고로 세뇌 교육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 좀 안타까울 뿐이다. 헌데 이러한 광고의 세뇌교육도 제품이나 서비스의 히트가 아니라 유행어 히트에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특히 LG의 카이 광고는 그 엄청난 물량과 이정재라는 빅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무슨 광고인지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만약 일반 업종처럼 월간 2,3억 정도 밖에 집행하지 않는 광고였다면 아마도 벌써 사라졌을 광고가 아니였을까 싶다.

'잘자, 내꿈꿔' 광고도 지금 어느 회사 광고인지 기억 나시는가? 무슨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시는가? 아마도 이 글을 읽는 독자 중 십중팔구는 대답을 못할 것이다.

즉 엄청난 광고 물량으로 유행어가 탄생하고 촬영한 감독도 더욱 대접받게 되었는데 정작 제품의 속성은 광고 뒤로 숨어 버린 것이다.

이거야말로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광고는 히트했는데 제품은 실패하거나 기억을 못하다니!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난 공짜가 좋아 등 유행어를 강요하는 광고들이 이런 위험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통통신 5개사 중 가장 많은 히트 광고를 내고 신세대들에게 회자되는 광고를 많이 만들었다는 한솔 PCS가 가장 낮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여 급기야는 한국통신 프리텔에 합병되어 버린 것을 보면 이동 통신의 광고가 얼마나 소비자, 시장과 동떨어진 광고를 내보내고 있었던가를 말해주고 있다.

즉 소비자들은 광고는 광고대로 따로 즐기고 실제 구매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는 광고를 위한 광고, 유행어를 위한 광고는 상가하고 제품의 속성이 살아 숨쉬는 크리에이티브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럴 돈이 있다면 기술 개발이나 서비스 개선에 사용하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광고는 이미 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수단을 넘어서 문화의 중요한 한 축으로 대접받고 있다.

인터넷상에 광고만 취급하는 사이트가 10여 개가 넘는데도 인기가 높다고 한다. 광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 사이트 애드야(www.adyah.com), TV광고 동영상 자료를 모아 놓은 CF베스트(www.cfbest.com), 광고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을 주식거래와 연결시킨 애드아이(www.adstock.co.kr), NG장면만을 모은 NGTV(www.ngtv.net)등 일반인들도 광고를 즐기는 것이 이제는 통상적인 문화현상이 된 것이다.

이렇게 광고에 대한 관심과 저변이 확대되고 있기에 광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더더욱 일방적인 메세지 전달이나 유행어 탄생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수준 높은 크리에이티브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김 태 홍
서울광고기획 국장

특권 · 공짜 · 퓨전 커뮤니케이션의 이름으로

통신회사의 멤버쉽 카드 … 개인의 소비성향과 취향에 맞게 선택해야

TTL, 나, 카이, i-club.

암호와도 같은 네 개의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는 통신회사의 멤버쉽 카드라는 점이다.

바야흐로 이동통신의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는 요즘 멤버쉽 카드에 대한 통신회사들의 마케팅 전략도 치열하기 이를 데 없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2천 1백만을 넘어선 지금 통신회사들에게 더이상 가입자 수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현재의 가입자들을 만족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에 따라 멤버쉽 카드는 고객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자리매김 하였다.

멤버쉽 카드, 제 2의 신분증

멤버쉽 카드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을 관리하고 나아가 기업의 이익을 환원하는데 있다. 뿐만 아니라 10대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 세대별 욕구를 파악하는 타겟 마켓팅(Target Marketing)과 일대일 마케팅(One-to-One Marketing)으로 평생고객의 서비스 정신을 표방한다.

궁극적으로 연령별, 성별 선호를 넘어서 개개인에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이른바 카드족으로 불리는 젊은 세대들은 멤버쉽 카드의 목적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소비자로써의 권리를 행사하고 알뜰한 소비문화를 이끌어 가는데 일조하고 있다. 각종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욕구가 늘어나면서 멤버십 카드는 이제 제2의 신분증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바로 그 선두에 통신브랜드가 있다.

현재 타겟 마케팅의 성공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011 TTL카드 회원수는 1백 9십만명으로 영화관람을 비롯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부터 스키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나', '카이' 등 문화브랜드임을 자처하는 새로운 멤버쉽 카드는 까페, 노래방, 당구장등의 여가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통신브랜드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공짜가 좋아?

하지만 한번쯤은 이러한 멤버십 카드 때문에 불필요한 소비를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TTL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학생은 "영화 볼때나 패스트푸드점을 이용할때는 할인받을 수 있어서 좋지만 할인된다는 생각 때문에 안써도 될 돈을 쓸때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멤버십 카드를 사용하면서부터 통화량이 늘어나 요금도 많이 낸다"며 고개를 갸웃거린다.

현재 통신회사의 멤버십 카드는 무료로 가입되는 011의 리더스 클럽, 017의 i-club를 제외하고 특정한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보통 다른 요금제보다 비싼 1만 7천원에서 1만 9천원까지의 기본요금을 적용하는 대신 10초당 통화료를 낮게 부과한다. 휴대폰 사용량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합리적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결국 '불필요한 소비'는 멤버십 카드 자체에 있다기 보다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화량이 많은 비즈니스 요금에서부터 통화량이 적은 다이어트 요금까지, 다양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데 멤버쉽 카드의 '공짜가 좋아' 괜한 돈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하지만 멤버쉽 카드는 자기의 소비성향과 취향에 맞게 선택·사용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기왕 가입했는데 맘껏 쓰자거나 휴대폰을 거의 사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기본요금을 지불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멤버쉽 카드는 단연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다.

여행을 할 때도 아는 만큼 보고 배운다고 한다. 멤버쉽 카드의 혜택과 단점을 제대로 파악하여 선택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겠다.

최은진 기자
funny@dongguk.edu

통신브랜드 멤버쉽카드 비교

리더스클럽(011)	TTL(011)	i-ciub(017)	Na(016)	Khai(019)
성공세상 Speed Mate 제휴, Ins OK 보험 중개 서비스, 아시아나 항공 제휴, 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자유세상** 놀이공원 제휴 (무료입장, 자유이용권할인) T.G.I.F.25%할인(음료제외) 콘도 특별할인 **행복세상** 파리크라상 25% 할인, 신세계 백화점 제휴, 암보험 무료가입 **여유세상** Travel OK 여행관련 제휴 건강검진 서비스	**TTL 지역 할인 요금** 기본료 : 월 18,000원(기본 할인지역 1개) 월 1,500원으로 1개 지역 추가 가능 ※ 폰메일 서비스 월 100회, 마이벨 서비스 월 2회 무료 **TTL 지정번호 할인 요금** 기본료 : 월 17,500원 지정번호 개수 : 3 개까지 선택 가능 (011, 017, 016, 018, 019만 해당) 지정번호 통화 40% 할인 ※ 폰메일 서비스 월 100회, 마이벨 서비스 월 2회 무료 **TTL 커플 요금** 기본료 : 월 18,500원 무료통화 혜택 : 커플간 매월 600도수(100분 상당) 무료, 매일 심야 6시간은 공짜	i zzang 하디스·스바로 20% 할인, 캐리비안베이·페스티발 월드 할인 메가박스·명보극장 할인 Tube 뮤직 할인 **i pro** 베니건스 20% 할인, 놀이공원 무료입장·할인, 캐리비안베이 할인, 3wtour 무료통화, Tube 뮤직 할인, 대구 송죽미용실 할인 **i sense** 크라운베이커리 20% 할인, 새리 미용실·박승철 헤어 40% 할인, 허심청 동래관광호텔 온천레저타운 할인 **i classic** 전국휴양지 콘도할인, Travel OK 무료통화, KMI 건강검진 할인, 골프장 예약 서비스, 허심청 동래관광호텔 온천레저타운 할인	**베이스** 메시지 송신서비스 월100건, 이모티콘 월30건, 매직벨서비스 월 3분 무료 기본료(월) : 17,000원 무선데이터 무료통화 월 30분 **캠퍼스** 무료통화 월10분씩 적립 매직벨서비스 월 3분 무료 기본료(월) : 18,500원 할인율 적용 (국내통화료 대상) 무선데이터 무료통화 월30분, 음성게시판 자기대학(1555) 캠퍼스 그룹내 통화료 적용 연락방(1557) 캠퍼스 그룹내 통화료 적용 **커플** 매직벨 서비스 월 3분 무료 기본료(월):18,500원 NA+커플고객 2명간 무료통화 및 메세지 월 800건 **Campus Zone** 기본료:(월)고객이 선정한 할인지역 (326개 대학 캠퍼스 중 기본 할인지역 1개 선택) 에서 통화시 온종일 할인 요율 적용	**공통서비스** 매월 국내 통화료가 가장 많은 날의 국내통화료 50% 할인, ez-i Service 기본료 면제(월 40분 무료), 단문 메시지 전송(폰투폰) 서비스 월 100건, 이지 멜로디 월 2분 정보이용료 무료, 019간 통화시 10% 할인 적용 **Basic** 기본료:17,500원 **Friends** 기본료:18,500원 **Couple** 기본료:18,500원 Couple 지정번호 : 00시 ~ 06시, 완전무료, 06시 ~ 24시, 무료통화 600도수(100분상당) (초과시 16.2원) **Club** 기본료:18,500원 019번호로 4개부터 10개까지 Club 구성 가능 **Zone** 기본료:18,500원

짧은소식

학교 안에서

하나 한마당

서울캠의 경영인이 함께 모여 축제를 연다.

학술제와 체육대회, 경영인의 밤으로 진행될 이번 행사는 졸업생, 재학생, 교수까지 경영인(경영학과, 경영학부, 경영대학)이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학술제=오는 28일 6시 동국관 M동 408호, 체육대회=오는 29일 11시 대운동장·만해광장, 경영인의 밤=오는 30일 5시30분 상록원3층 교수식당에서.

문의 2260-3641(경영대학생회)

법과대 학술제

서울캠 법과대와 함께 법에 관한 소양을 기를 수 있는 학술제가 열린다.

법과대 소속의 공법학회, 국제법학회, 민주법학회가 각 분야별로 주제를 정해 학술제를 갖는다.

S.O.F.A.의 불평등 조항에 대한 고찰, 국적법에 관한 위헌법률, 언론의 자유 보장에 관한 주제를 다룬다.

△ 오늘(25일) 6시 국제법학회-'S.O.F.A의 불평등 조항에 대한 고찰' △ 26일 6시 공법학회=국적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 27일 5시 민주법학회-'진정한 언론자유의 보장을 위한 대한 모색'. 학림관 소강당에서.

문의 2260-3634(법과대 학생회)

아리랑 상설공연

서울캠 민중가요 동아리 아리랑이 상설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은 학생들에게 민중가요를 알리기 위해 민중가요의 개념설명, 노래단 소개, 노래분석 등이 진행된다. 대중가요와 다른 민중의 소리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29일부터 매주 금요일 6시. 학생회관 앞에서.

문의 2260-3785(아리랑)

돌핀스 농구대회

경주캠 돌핀스가 '돌핀스배 3 on 3 농구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농구대회는 전 동국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여자 자유투 대회도 마련해 색다른 경기 진행을 선보인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이 전달될 예정이다.

오는 27, 28, 29일. 대운동장에서. 참가비 3만 5천원.

문의 (054)770-2764

메아리

변 신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을 읽어보면 한 젊은 샐러리맨이 아침에 잠을 깨어 보니 거대하고 추한 벌레로 변해 있더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마음이나 정신은 보통 사람과 똑같은데 육체만 징그러운 벌레로 변해 버린 그를 본 가족들은 그의 모습을 무서워하며 피했고, 심지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방에다 가두어 놓고 그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손에 손을 잡자는 올림픽 주제가를 열창했던 지난 88년 서울 올림픽. 분단 국가의 아픔 속에서 치러진 당시의 올림픽 주제가는 세계가 하나 됨을 알렸던 주제가이기 이전에 조국 통일의 염원을 노래에 담아 전 세계에 전했다. 그로부터 12년 후 시드니 올림픽이 개막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으로 통일의 열기가 채 식지 않은 한반도의 분위기를 타고 시드니의 양측 대표 선수들이 7천만 겨레에게 보여준 화합의 모습은 더없이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하루 수십 번씩 폭등 폭락하는 고유가의 위기, 또 다시 불안해지는 국내 금융시장, 베일에 싸인 한빛은행 대출 부정 의혹사건, 끝이 보이질 않는 의약분업 파동, 예나 지금이나 변할 줄 모르는 부정선거 시비 등의 잇따른 정치적 이슈는 국민들의 불안 심리를 날로 증폭시키고 있다. 혼탁한 경제와 국정 개혁을 외치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으로 제2의 IMF가 재현될 위기를 맞고 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현 경제 혼란의 대비책 마련에 전력을 다해야 하지만 우리 앞에 당면한 민생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없다는 사실이 안타깝다.

▲먼 이국 땅에서 남북한은 50년이라는 분단의 세월을 뛰어넘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민족의 기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한반도의 반쪽 육체는 불안정한 경제난국과 이에 대응 못하는 정부의 미온적인 움직임에 대한 비난 여론으로 흉칙하기 짝이 없다.

불확실한 대안과 안일한 사고는 국가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갈 뿐이다. 프란츠 카프카의 거대하고 흉칙한 벌레의 비참한 죽음처럼.

김미영 편집부장
candy@mail.dongguk.ac.kr

소나기

경의선 철도

△난 달리고 싶다! 대중오빠 달려!
△과연… 내가 탈 수 있는 기차가 될지…
△어깨에 힘만 팍팍 주는 그런 者들만 태우는 거 아냐?
△그때는 그 기차 타고 데이트 갈 수 있으려나~
△먼저 지뢰나 철저히 없애주세요~
△경의선을 달리는 기차의 종류는? 철마
△금강산 여행이 한물 가겠군…
△철마의 한이 비로소 풀리는가!!
△승무원은 두 번을 갈아 타야한다는데… 기차 승무원 파이팅!!
△돈이 엄청 들겠군. 우리의 피같은 세금을 물같이…
△그거 타고 월남하는 사람은 어쩌지?
△남남북녀 만나 이야기 꽃을 피웁시다.
△4천만 동포는 전국에서 복구의 목소리를 외쳤다.
△정부는 통일 정책만 신경 쓸게 아니라 제2의 IMF를 막아라.
△영호남 교류를 위한 철도도 필요하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 또한 돌아오는 다리로 만들어라.
△경의선 복원은 정부와 함께 시민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대통령 또는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잘라진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이회창도 침목을 기증했다죠? 철마야 멈추지 마라. 제발~
△철마는 달린다.
△평화통일 이룩하여 철도관광 성사시키자!
△지뢰를 다 제거하려면 몇 년 걸릴까? 아마 수백년!
△끊어진 허리 쬐끔 땜빵했다고 통일되진 않겠지?
△경의선 철도 건설하는데 서영훈과 이회창만 빛보더라. 뭐~
△시베리아 횡단 열차 타고 유럽 가야지!
△경 : 경사 났네
의 : 의절 했던 형제가 만나
선 : 썬더볼트(?)
△그래. 이젠 달리죠~
△이기~마! 통일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거시라용~ 동무들!
△철마는 달려야 한다. 암암…

서울 ☎:22603491· 2
FAX :22791270
경주 ☎:(054)7702058
FAX :(054)7702057
문의 · 제보:dongukpress@dongguk.edu
하이텔 ID:dgpress
나우누리 ID:동대신문
천리안 ID:dgupress

독자들의 의견이 담긴 원고지 3~4매 분량의 글이나 시, 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분께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구체적 닷컴 기사 아쉬워

아직은 취업에 큰 고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나이지만 지난호 생활면 취업길라잡이의 글을 관심있게 보았다.

닷컴기업과 관련해서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얼마만큼의 중요성이 있는 지는 인식할 수 있었지만 몇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다. 바로 대략적인 소개에만 그치고 있었던 것이다.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의 열거와 닷컴 취업을 했을 경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취업을 위해 어떤 점에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등을 제시했다면 도움이 많이 됐을 것이다. 또한 위기론이 일고 있는 이유도 같이 소개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황정희 (인문대 역사철학부2)

동대신문은 학생들의 얼굴

학교 신문은 딱딱하고 지루한 기사만 실리겠구나 하는 편견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문을 꼼꼼히 살펴보니 학교 소식을 다양하게 실은 점이 참신하게 느껴졌다.

특히 학생들이 올리는 글들을 읽고 그들의 학교에 대한 생각을 알 수 있었으며, 그 생각들과 나의 견해를 비교할 수 있어 학교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다.

한가지 당부할 것은 즐거운 기사거리를 좀 더 늘여, 학생들이 보고 웃을 수 있는 신문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 학교의 소식을 좀더 유익하고 재미있게 실었으면 좋겠다.

이상현 (사과대1)

힘든 통학길 … 셔틀 버스 운행 시급

통학을 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겪는 일이겠지만,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학교까지 가는 길은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다. 터미널에서 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가면 700원의 요금을 내고 대략 20~25분 가량의 시간이 걸린다. 반면 택시는 5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2천원 가량의 어마어마한 요금을 내야하는 현실이다. 물론 친구들과 택시를 함께 타는 방법이 있지만 항상 같은 시간에 만나서 올 수도 없는 노릇이다.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버스를 타지만 때론 지각을 면하기 위해서 택시를 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시내버스의 경우 어느 정도의 사람이 탑승을 해야 출발하기 때문에 아마 버스 안에서 맘을 졸여 보지 않은 학생은 없을 것이다. 게다가 학교를 지적에 두고도 경유노선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경주시내 일대를 경유해야 한다. 택시의 경우도 줄서 있는 사람들보다 택시수가 턱없이 모자라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린 적도 있다. 이럴 때마다 학교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한다. 터미널이나 경주역,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타는 성건동 일대를 정류소로 해서 시간마다 운행하는 셔틀버스가 있다면 학생들의 지각걱정도 덜 수 있고 주머니 사정도 한결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셔틀버스가 꼭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한은혜 (관광대 관경2)

사이버상에 필요한 매너 예절

요즘 인터넷을 못하면 어디 대화에도 끼지 못하는 것이 학내 분위기이다.

각종 정보의 교환과 활용은 물론 일상적인 편지에 이르기까지 인터넷의 편리와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러한 편리성과 함께 문제되는 것이 있다. 자주는 아니지만 학교 내에 개설되어있는 각종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정보의 이용이나 안부를 묻는 글보다는 사이버 토론이라는 형식을 빌려 상대의 험담이나 악성 루머, 그리고 수준이하의 욕설이 난무하는 것을 종종 보게된다.

각 학생회 사이의 정책 차이로 인한 상호 비방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뻥튀기식 폭로에 이르기까지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심할 정도로 저속함을 드러내고 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익명성이 보장되고 무한한 창조가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이점을 악용하여 타인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는 삼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다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가능하면 자신의 실명을 사용하고 상대방에게도 개방되어있는 진정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구진회 (인문대 국문4)

V I E W F I N D E R D O N G G U K

가을맞이… 책을 들쳐메고 찾아간 남산… 수업에 열중한 학생들의 진지함 위로 성큼 다가온 가을이 느껴진다.

촬영=송광수 동문

'끊음'이 미덕이 되는 시대

열한시 경을 전후해 술자리에서 가장 자주 목격되는 장면 중 하나는 가려는 사람과 잡으려는 사람들간의 실랑이다.

술자리에 조금이나마 더 끌고 가서 인간적 정분을 쌓자는 뜻으로 이해되기는 하나 가야 하는 사람에겐 참 곤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실랑이가 계속되다 누군가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는 것은 술이 아니라 정이다!"는 말을 하면 자리에 주저앉고 만다. 그래도 끝까지 뿌리치고 집에 가는 사람은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라고 매도당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끊는 문화'에 익숙지 못한 우리의 생활방식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분명히 필요 없는 물건인데도 '언젠가 쓸데가 있겠지'하는 생각으로 그 물건을 쉽게 버리지 못한다.

그러나 후에도 그 물건은 쓸데가 없고 괜히 자리만 차지하고 있어 새 물건을 들여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끊는 문화'가 부재한 우리의 생활방식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우리의 문화가 예로부터 정에 약하고 무엇이든 가지고 유지하는 것에 익숙한 문화이다 보니 생겨난 현상이다.

하지만 잠시 우리의 생활을 돌아보자. 끊지 못해 곤란을 겪은 적이 한두번인가. 할 수 없이 술자리에 잡혀 있다가 다음날 수업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버릴것을 제 때 버리지 못해 방이 난잡하고 너저분해진 일이 분명 있을 것이다.

지키고 유지하는 것 역시 간과해서는 안될 가치이다. 하지만 이제는 '끊음'으로써 더 나은 생활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미덕인 시대가 되었다. 아쉽더라도 끊어야 할 때,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가야할 때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시구처럼 끊어야할 때를 알고 끊는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다운 시대이다.

김세형 (문과대 국문학부2)

금연구역 지켜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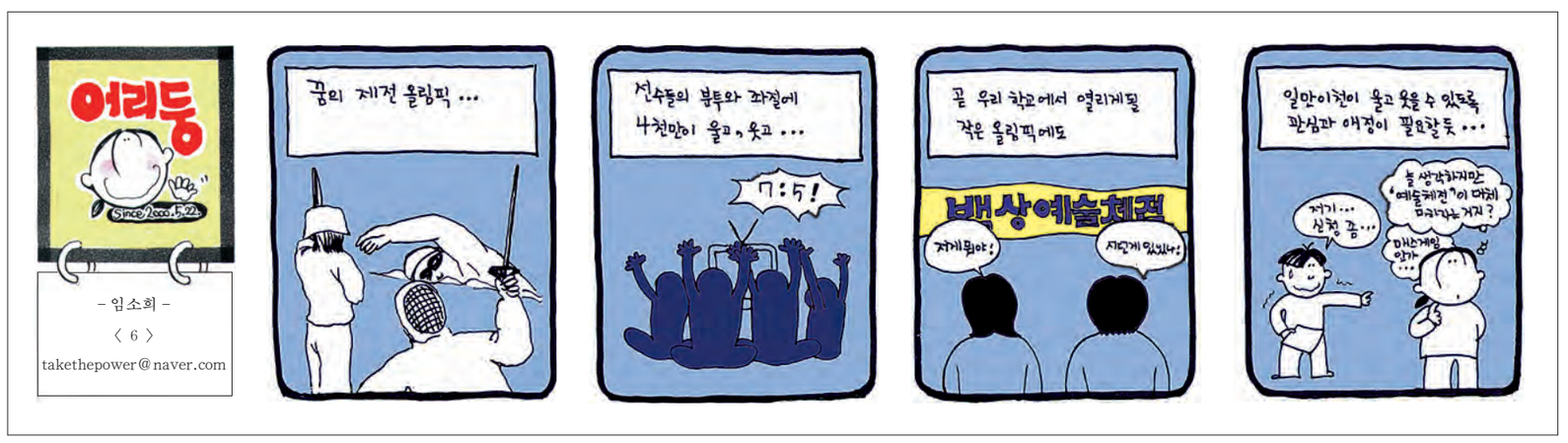
학교내 흡연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대학내 복도와 열람실 앞에 붙어있는 공공장소내 금연이라는 표지가 무색하게 피어오르는 연기와 떨어진 담배꽁초가 참으로 안타깝게 보인다.

흡연은 흡연자 자신의 몸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간접흡연자의 건강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간접흡연으로 들이마시는 담배연기는 필터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유독 물질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 흡연자보다 더 심한 건강상의 피해를 입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생각의 발로이다.

우리 사회는 음주와 흡연에 너그러운 편이다. 그러나 그 너그러움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모든 흡연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공공장소에서의 이기적인 흡연은 비판받아 마땅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정된 흡연장소에서 흡연하는 자세를 지녀야 할 것이다.

장수련 (사과대1)



동악광장

동국관 학생식당 차림표

월	순두부찌개(1300)
	미트볼덮밥(1500) 오징어볶음(1500)
화	설렁탕(1500) 고구마볼미밥(1300)
	비빔만두(1500)
수	열무비빔밥(1500) 갈비찜백반(1500)
	바지락수제비(1300)
목	부대찌개(1300) 제육덮밥(1500)
	치킨볶음밥(1500)
금	돈육풋고추찌개(1300) 탕수육백반(1500)
	순대야채볶음(1300)

(단위:원)

상록원 학생 · 교직원식당 차림표

월	돈육찌개(1300) 쇠고기국밥(3300)
	양송이볶음밥(1300) 바다장어강정(3500)
화	양지탕(1500) 튀김우동(3300)
	치킨까스(1500) 아구찜(3500)
수	참치우거지국(1300) 조기매운탕(3300)
	모듬볶음밥(1300) 열무비빔밥(3000)
목	햄섞어찌개(1300) 근대국(300)
	게맛살깐풍기(1500) 수육쌈정식(3500)
금	쇠고기무국(1300) 알탕(3300)
	회덮밥(1500) 닭조림(3300)

(단위:원)

목멱골

축하합니다

△인선아 5일의 시작을 축하한다. 내가 부탁한 거 잊지 말고 -웅사랑
△태경, 정말X2 미안해. 거의 두 달만에 네 생일을 챙길 줄이야. 그래도 내 맘 알지?
△썽, 너는 날이 갈수록 예뻐지는 구나. 너의 탈바꿈 축하 축하!

수고하셨습니다

△정미야, 열심히 해라. 난 이제 새로 태어난다. -너의 4단어 중 한 단어
△혜정아, 씩씩하게 훌륭한 잡지 만들어라. -너의 친구
△성규, 성준아, '문과대 자치 기구 00학번 권리 찾기'에 더욱 매진해라.
△이 시대의 마지막 로맨티스트, 올해안으로 꼭 CC 성사되길…

열심히 합시다

△송근 오빠, 요즘 몸이 너무 안 좋다며? 오빠 뒤에는 튼튼한 전봇대 다리가 있다. 짠! 힘내라, 얍~
△two pac오빠, 오빠의 멋진 모습에도 여자친구가 없는 이유는 혹시 오빠의 눈이 높아서? 힘내세요! 오빠 패션 너무 멋져요!!! -그린
△철련아, 힘든 일 있는 것 같지만 말하고 싶지 않다기에 묻지 않았어. 그냥..야자 끝나고 함께 나누던 그 많은 이야기들이 무척 그리워진다. 힘내! -토끼

그리고…

△명수 오빠 향우회 때 그냥 인사만 하고 가서 죄송해여. 담에 신당동에서 밥사주세요. -여고 후배 H.J
△미선, 너 일본가면 나 누구랑 노냐? 에잇~바다 건너에서도 나의 사랑은 변함없당 -풀코스
△뵨태쉐리야, 놀려서 미안해. -SK

온방골

축하합니다

△중앙 풍물패 '불휘' 전국 대학생 마당놀이 경연대회에서 금상수상!
△현숙이가 생일 이래용~ 셤 기간인데…(우리과는 특이해서) 마니 축하하고… 오래 살아라. 축제 파트너 빨리 구해라! 나도~ -숙이를 ♡…
△42기 10명! 껍데기 벗어 던진 거 축하해. 3년… 기대하마. -형

수고하셨습니다

△26집 교지 나온거 진심으로 축하하고 수고 많았다. 영종이, 재영이, 그리고 수습들. -경민이 형이
△T.G 파이팅 은주, 영임, 수진, 진향, 하영이는 좋은 친구들… -T.G 만세.
△수교과 산업시찰 다녀오느라 수고~

열심히합시다

△유진아, 성의역사 레포트 열심히 해와. 나좀 베끼게… -귀여운 친구
△왕씨야~(비밀보장 위해)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하겠다는 너의 열정은 어떻게 됐니? 앞으로는 열심히 하길 바래. -너의 방짝이

알립니다

△9월 30일… 계림에서 드디어 모꼬지 갑니다. '00, '99들아! 이번에 잘 뭉치자!
△10월에 토함 사학회 총회 합니다! 우리 한번 모여요! 파이팅! -현 회장

그리고…

△컴 four 퀸카(지현, 동미, 윤미, 미선) 기사시험 합격해서 기사식당에서 백반 한번 먹자…! -컴(야)
△뽀식이 팬클럽 모집중!!
-뽀.사.모(창단식=중세사 시간~)

경주캠 학생회관 식당 차림표

월	감자양파국(1300) 쇠고기무국(1300)
	카레라이스(1500) 생선까스(1800)
화	콩나물국(1300) 소시지찌개(1300)
	김치볶음밥(1600) 스파게티(1800)
수	미소시루(1300) 미역국(1300)
	돈까스(1500) 낙지볶음덮밥(1800)
목	팽이버섯된장국(1300) 배추국(1300)
	쇠고기볶음밥(1700) 설렁탕(1800)
금	감자찌개(1300) 북어채국(1300)
	제육볶음덮밥(1600) 전주비빔밥(1800)
토	된장찌개(1300)
	오징어덮밥(1600) 해물칼국수(1300)
일	순두부찌개(1300)
	햄야채볶음밥(1600)해물칼국수(1300)

(단위:원)